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The Current Status and Overseas Case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유광흠 Yu, Kwang Heum
조상규 Cho, Sang Kyu
엄운진 Eum, Woon-Jin

(a u r 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

itute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The Current Status and Overseas Case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지은이: 유광흠, 조상규, 엄운진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08년 9월 16일, 발행: 2008년 2월29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06-6

발간물 번호: AURI-기본-2007-7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The Current Status and Overseas Case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a u r i

연 구 진

연구책임 | 유광흠 • 연구위원

연구진 | 조상규 • 부연구위원

| 엄운진 •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 운영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서수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조준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전봉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인호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구요약

제1장 서론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 정보는 건축 및 도시정책, 산업, 문화 및 학술 분야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공정보이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는 이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정보가 행정 기관의 내부 업무 자료로만 인식되어,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도시 분야의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검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관련 정보 관리현황, 해외 관련 기관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특성

경제규모의 성장과 국제 경쟁의 심화,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와 같은 전반적 사회 여건의 변화로 건축·도시 분야의 고도화와 질적 향상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축·도시 분야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의 지식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천기록물 관리로부터 지식의 보급·전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의 원천이 되는 원천자료 및 기록물의 관리가 선결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건축·도시공간의 원천기록물은 위치 정보, 디자인 정보, 프로젝트 과정의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산성, 비정형성, 기밀성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도시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건축·도시공간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건축물 정보와 도시공간 정보의 통합으로 위치 정보 기반의 건축·도시공간의 3차원 공간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못해서, 건축물 정보와 도시공간 정보의 유기적인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단순히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생애주기에 대한 기록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국토 정보화 사업이 건축물 등의 시간적 정보를 누락되어 건축물 멸실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정보 신뢰성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 과정의 경과, 심의 의견 등과 같은 정성적 정보는 향후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입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적 정보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역사문화적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형성의 역사적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물들과 건축가의 작업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이나 스케치 등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정보와 기록들은 교육 및 학술 연구와 전시를 위한 기반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기구의 형태로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원천기록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조차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3장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현황

이 장에서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부문 정보 및 민간부문 정보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부수립 이후의 근·현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수립 이전의 기록물들은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학술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된 기록이나 정보의 경우 오히려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록물이나 민간 기록물에서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현대 건축물이나, 도시개발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건축물과 도시공간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중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서 '현용기록물'로 분류되어,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술 연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앞으로 생산되는 건축행정기록물들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 도입 이전의 행정기록과 준공도면 등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보화 포털 사업의 경우, 지식정보의 관리와 유통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관 학회와 대학교의 학술적 성과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 매우 성공적인 정보화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완결된 지식정보가 아닌 지식 생산의 근거가 되는 원천정보에 대한 정보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한편, 민간부문의 기록물 관리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설계사무소와 건설

사 모두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모형이나 스케치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계획 및 설계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적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설계 업무에서도 작업의 중간 결과물이나 회의 내용 등은 교육적·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 해외사례 연구

해외사례 연구는 주로 건축물 기록정보 관리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방문조사와 기관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외의 대표적인 건축 박물관과 아카이브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축물과 도시공간 기록정보 관리의 목적이나 시설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시설 유형으로는 박물관과 아카이브, 전시·홍보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기록관리의 목적 또한 자국의 건축설계 산업의 기반구축 및 국제진출, 건축 문화의 보전 및 전파, 지자체 및 국가의 사업성과 홍보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축·도시공간 정보 관리 정책의 목표가 각 국가의 건축·도시 분야의 여건과 발전 방향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기관들은 건축 기록물을 전시, 출판, 교육 및 연구지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간의 국제적 교류와 공동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적 목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공공부문의 기록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앙 부처 및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관련 정보화 사업 간의 연계성의 강화, 세 번째 목표는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사회적 보급 및 활용 체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건축물 및 도시개발사업 아카이브, 근·현대 역사건축물 아카이브, 신도시 개발사업 아카이브, 건축 공모전 아카이브와 같은 주제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반 건축물들에 대한 개략적 정보와 3차원 형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및 국가 GIS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정보 인프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간의 연계성 확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형식 및 기술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준의 확립은 관련 정보 기반간의 연계 및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건축·도시공간의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산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정보 내용의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국가 전체의 정보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관건이 되며, 이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 전담기관 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보급 체계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국제 교류의 거점이 되는 건축도시분야 전문 박물관과 같은 시설기반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산정보가 아닌 실물 기록매체의 수집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문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건립 예정인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계획의 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간정보 수집의 의무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의 건축·도시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정보 이외에도,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 대한 기록 제출의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산업적·학술적 정보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에 개입하는 정부·민간·학계의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의 건축·도시분야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 기록정보 관리의 해외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이후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건축물 정보, 도시공간 정보, 아카이브, 박물관, 기록관리

차례

제1장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3. 연구의 진행	4
제2장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특성	6
1.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유형	6
1) 건축·도시 분야의 시대적 변화와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	6
2) 건축·도시 분야 지식 생산과 원천기록물의 중요성	7
3)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종류와 특성	8
2. 건축·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과 정보인프라	12
1) 새로운 건축·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	12
2) 사회적 정보 인프라의 유형과 특징	15
제3장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현황	18
1. 역사적 건축·도시 기록물의 관리 현황	18
2. 건축·도시분야의 공공기록물 관리 현황	20
1) 국가기록원의 건축·도시관련 기록물 보유 현황	20
2) 현용 기록물의 관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e-AIS)	21
3) 설계경기 관련 정보	22

4) 건축·도시 관련 정보화 포털 사업	23
3. 민간기록물 관리 현황조사	25
1) 조사 개요	25
2) 대형 설계사무소의 정보관리 현황	25
3) 중소규모 설계사무실	27
4) 대형건설회사	28
5) 모형제작 전문 업체: (주)기흥성	28
4.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보의 문제점	29

제4장 해외사례 연구 32

1. 해외사례 연구개요	32
1) 기본방향	32
2) 조사 대상 선정	32
2. 사례연구	36
1) 네덜란드 건축협회	36
2) 독일 건축박물관	37
3)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	39
4) 20세기 건축기록물 보관소	40
5)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41
6) 영국 건축도서관	42

7) 핀란드 건축박물관	42
8) 캐나다 건축센터	43
9)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44
10)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	44
11)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46
3. 해외사례의 시사점	47
1) 건축기록 보존의 목적 및 성격	47
2) 시설 및 운영	49
3) 건축기록물의 활용	52
4) 국제적 연대와 교류	5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8
1. 정책적 제언	58
1) 정책 목표	58
2) 중점 추진 과제	60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62
• 참고문헌	64
• Summary	66
• 부록 1. 민간기업의 건축기록물 관리현황 조사	70

표 차례

〈표 1〉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의 분류 예시	9
〈표 2〉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보유현황	20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사업 및 제출도서 현황	22
〈표 4〉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건설정보화 사업 개요	24
〈표 5〉 국제건축가협회(UIA)에 등재된 건축박물관 리스트	33
〈표 6〉 해외사례 박물관 선정 리스트	35
〈표 7〉 NAI 시설현황	37
〈표 8〉 DAM 아카이브 현황	38
〈표 9〉 DAM 시설현황	38
〈표 10〉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 박물관 시설현황	40
〈표 11〉 20세기 건축물 기록보존소 시설현황	41
〈표 12〉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시설현황	42
〈표 13〉 캐나다 건축센터 시설현황	43
〈표 14〉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시설현황	44
〈표 15〉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 시설현황	45
〈표 16〉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시설현황	46

그림 차례

〈그림 1〉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도쿄 3차원 도시공간 정보	13
〈그림 2〉 버추얼 어스 기반의 실시간 3D 도시경관 정보 서비스	13
〈그림 3〉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건축도시 기록물 관리 현황	18
〈그림 4〉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학교건축도면 컬렉션	19
〈그림 5〉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의 도시모형	45
〈그림 6〉 싱가포르 도시갤러리의 도시모형	46
〈그림 7〉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전시장	46
〈그림 8〉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관의 인터넷 자료 예시	55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진행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걸쳐 경제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질적 수준의 고도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분야에서는 물량 중심의 주택·도시공간 공급 시스템을 탈피하여 건축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 정책의 수립 및 산업 경쟁력의 향상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에 선행하여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관한 정보·지식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조성과정에서는 많은 분량의 정보와 기록물이 생산된다. 해외 국가들은 이러한 기록정보를 국가 자산으로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이 행정 및 정책수립, 학술 및 문화 활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인하(2003)¹⁾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는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정보와 기록물 관리가 취약하여 기초적인 자료수집에만도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관리의 취약성은,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의 특성 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눈부신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와 경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량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이

1) 정인하,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와 아카이브”, 대한건축학회지, 2003.8, p.18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정보의 관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물과 정보의 관리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건축 및 도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두 사고 모두, 관련 기록물이 보존 연한 초과를 이유로 멸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확실한 원인 규명이 곤란했다. 그 이후, 건축물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강화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가 가지는 정책적·산업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축·도시 분야의 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및 최근의 정책 환경 변화에 의한 정보수요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보관리 현황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지금까지 건축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전봉희 외(2003)²⁾의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일제강점기 건축기록물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박찬승(2003)³⁾은 당시 정부기록보존소⁴⁾의 건축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축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정책 수립, 산업활동 및 학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의 기본적인 성격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건축물 정보와 도시공간 정보의 관리 실태를 진단하며,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실천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건축기록물과 도시공간에 대한 정

2) 전봉희 외, “건축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2003.10

3) 박찬승, “기록물관리법과 건축기록물의 보존”, 건축, 2003, pp.20-22

4) 현재의 국가기록원

보의 통합적 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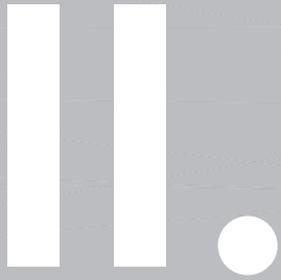
3 연구의 진행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정보와 사회적 정보 인프라의 유형에 대한 개념 검토,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 현황 진단, 해외 유관 기관의 사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건축·도시공간 정보와 사회적 정보 인프라의 유형에 대한 개념 검토 부분에서는, 최근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산업적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건축·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 및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정보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적 검토를 통해서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 강화의 기본적인 목표와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기본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의 현황진단은, 역사적 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정보화 포털 사업 및 민간의 기록물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까지의 건축·도시공간 정보 관리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의 정보관리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해외의 건축·도시 관련 박물관 및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관련자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외 사례 조사에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정보의 사회적 활용 방안과 전담 시설의 형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기반 시설이 될 박물관 혹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건축 · 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특성

1. 건축 · 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유형
2. 건축 · 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과 정보인프라

(a u r i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특성

1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과 유형

1) 건축·도시 분야의 시대적 변화와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

건축·도시공간 정보가 무엇이나에 대해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도시 분야의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도시공간 정보를 '건축 및 도시공간의 정책수립과 계획 및 설계의 실무와 관련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록과 정보'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시대적 변화를 근거로 한다.

우선, 우리의 건축·도시 분야는 소득의 증가와 국제적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로 인해, 양적인 공간 공급의 시대로부터 문화적 품격과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공간 환경 창출 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최근 관련 분야의 실무와 정책 수립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공간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 건축설계 분야와의 협업 강화, 공간 계획 체계의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 변화, 맥락성을 중시하는 공간 정책의 필요성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실무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보 수요가 고도화되고 있다.

둘째, 공간을 기획하는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역량이 전체 건설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경제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도 예외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정보 기술과 결합된 유비쿼터스 시티 개념의 등장과 같은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건설산업에서 시공 및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문의 기술역량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및 계획·설계 분야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정보 집약적인 업무이며, 이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셋째, 국가적인 건축과 도시 분야의 문화 자산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술 및 문화적 의미를 넘어서, 도시환경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건설 분야의 국제시장 진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의 기술력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그에 비해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는 매우 낮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자국 건축가의 활동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건설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관리하여, 관련 학술 활동 및 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건축·도시 분야 지식 생산과 원천기록물의 중요성

정보공학적인 관점에서 Ackoff(1989)⁵⁾는 지식 생산의 과정을 원천자료(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의 세 단계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식 생산의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지식정보는, 관련 학계의 논문이나 보고서, 잡지 등의 문헌 정보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지식정보의 생산은 주로 대학이나 학회,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연구기관이나 민간의 정책 보고서, 조사보고서 등도 정책 수립이나 행정 업무에 중요한 지식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정보의 생산 근거가 되는 원천자료는 무엇인가? 아마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차적인 원천자료는 실존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연구 대상인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연구자의 감각적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적 규모를 가

5) Ackoff, R. L., "From Data to Wisdom", Journal of Applied Systems Analysis, Volume 16, 1989, p.3-9.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굳이 건축이나 도시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 늘 경험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구의 생김새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나, 물질의 근본 단위를 탐구하는 물리학자 또한, 연구 대상을 관찰 도구의 도움 없이 인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공간의 디자인에 연구를 위해서는 건축물이나 도시공간 조성의 기틀이 되는 도면이나 계획 보고서, 관련 통계 등이 지식 형성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천 기록물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타 분야의 원천기록물에 비해서 건축도시분야의 원천자료는 도면과 지도 등 비문자적 정보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면 등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형상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계획 및 조성과 멸실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기록물도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다. 현대 건축 도시공간은 고도의 협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만으로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ICA, 2006⁶⁾). 단적인 예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는 건축물에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고에서 모두 사건 해결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보존 연한 초과를 이유로 멸실되고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 규명이 곤란했기 때문이다(이상준, 2004⁷⁾). 그 이후 공문서 보존규칙이 변경되어 건축도면의 보존연한이 30년으로 늘어나고, 건축물의 유지를 위해 관련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3)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종류와 특성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향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축·도시공간 정보란 건축 및 도시공간의 정책수립, 계획 및 설계의 실무와 관련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용한 지식정보의 생산을 위해서는 원천기록물의 관리가 정보 관리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련된 기록정보는 어떠한 형태로 생산되며 존재하는가? 이는 특정 시점의 건축물 생산 방식 및 도시공간의 생산 방식과

6)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2000

7) 이상준, "기록물관리기관의 건축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론, 2004

관련되어 있다. 국제기록관리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는 19~20세기의 건축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지침서⁸⁾에서 건축기록물의 생산기관, 내용, 매체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한 기록 정보의 출처는 크게 행정 기관, 건축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와 시공업체로 나누어지며, 기록물의 내용은 프로젝트 업무 기록, 설계도서와 기록, 입찰관련 서류, 시공 관련 기록, 준공도면과 서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기록물의 표현 매체는 종이, 청사진 같은 고전적인 매체 및 전산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기록정보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정보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CA의 분류 기준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관한 정보는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물리적 디자인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및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의 스케일에 따라 건축물, 도시공간으로 범주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관련 기록물과 정보를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의 분류 예시

구분	건축물	도시공간	
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및 기반시설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정보의 내용	위치정보	대지경계선(측량도면) 주소	지구계 등 사업대상지의 공간적 영역 지형정보
	디자인 정보	준공도면 시공도면 계획도면 스케치 사진	준공도면 시공도면 계획도면 스케치 사진 보고서와 관련 지침
	프로젝트 진행 및 의사결정	프로젝트 파일 회의록 서신 및 메모 인허가 관련 행정기록 각종 심의 및 공청회 기록 건축물대장(신축/증·개축/멸실)	프로젝트 파일 타당성 검토 보고서 회의록 프로젝트 입안, 승인, 예산신청, 허가 등에 관한 고시 심의 및 공청회 기록 관보 게재 내용

8)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op. cit., pp.21-38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생산되며,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또한, 건축물 그 자체는 건축가의 창작 활동의 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기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분산성은 현대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생산이 고도의 협업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ICA(2000)⁹⁾의 건축기록물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양한 건축기록물의 출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기관만도 수십여 개소에 달하는 등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매우 많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허가 과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건축과와 경찰서, 위생과, 소방관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며, 건축물의 규모나 입지에 따라 관련 부서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록물 역시 설계사무소, 시공업체, 설비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일관성 있게 관리되기가 매우 어렵다.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공공의 도시공간에 관한 사업과 정책에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들의 업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 자료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비해 정보 관리나 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같은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관리 강화에 이들이 보유한 정보와 기록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정보의 두 번째 특성은 비정형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단순 문서로부터 각종 도면, 모형 등 다양한 형식과 매체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도면 정보의 경우 일반 문서에 비해서 정보의 관리 및 배포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에 관한 도면은 예술 분야의 회화와 달리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며, 그림으로 표현된 고도의 기록 정보라고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종이에 표현된 도면의 경우 관리와 보존이 매우 까다로우며, 구김이나 접힘에 의해 정보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 전산 정보인 경우에도 단순 이미지 파일로는 도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우며, 캐드나 GIS 기반의 표준 형식을 통해서만 정보의 전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일정 수준의 기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 및 배포에서 그 범위의 설정에 주의를 요한다.

9) Ibid., pp.21-38

10) 전산 정보 표현 형식의 용어를 빌리자면, 건축·도시 도면은 래스터(Raster) 이미지가 아니라 벡터(Vector) 이미지 정보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평면도와 아파트의 세대별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¹¹⁾. 하지만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 설계의 핵심이며, 실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건축물 평면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물 정보의 공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물의 저작권 범위는,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과 모형을 포함한다.¹²⁾ 따라서 건축물에 관한 기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군사적·정책적으로 비밀리에 취급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시 관리계획 변경 같은 사항은 행정기관 고시나 관보 게재 등의 형식을 통해 게시되며, 이 경우에도 관련된 도면이나 위치 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1)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12)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제4조 5항

2

건축·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과 정보 인프라

1) 새로운 건축·도시공간 정보 수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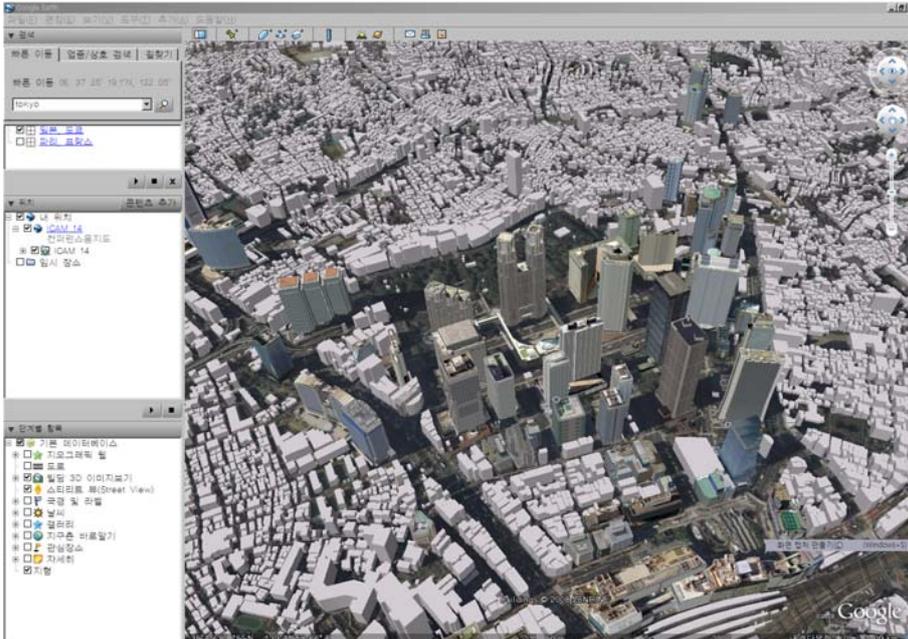
지금까지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개념, 유형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 및 도시공간의 정책수립, 계획 및 설계의 실무와 학술 활동을 위한 건축도시 정보는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최근의 정책 및 실무 환경의 변화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의 정보 수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건축과 도시정보를 통합한 3차원 기반의 공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부문을 포함하는 건축 도시공간의 계획 과정과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위치 정보와 결합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통합적 3차원 공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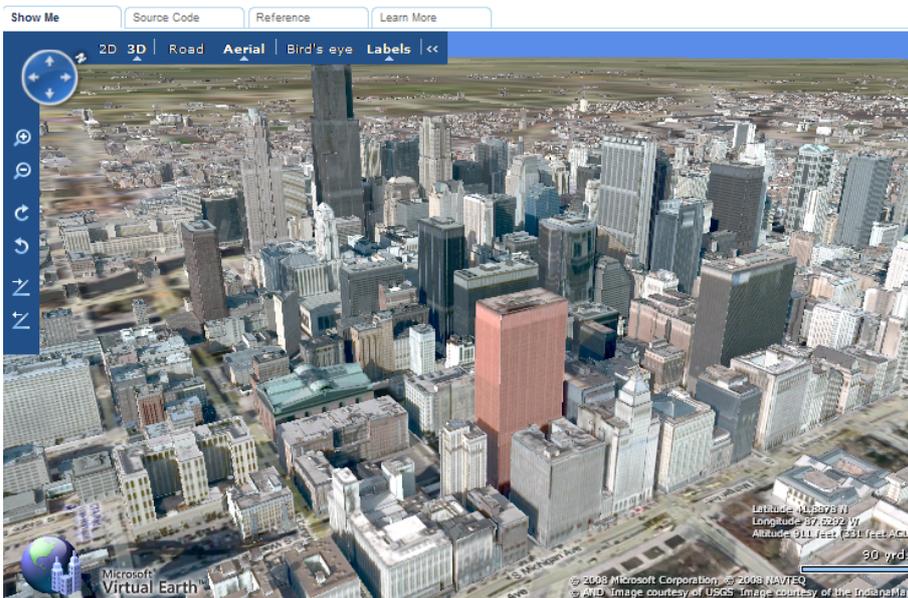
건축물 정보와 도시공간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학술적·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건축물은 건축물이 놓이는 입지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도시 공간의 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집합적 공간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일 건축물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정보 및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용이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공간의 공급 및 개발에서 건축 스케일의 공간적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 분야와 건축 분야의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관교 신도시와 같은 이른바 '2기 신도시'의 계획 과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신도시의 계획은, 향상된 도시공간 및 생활공간 형성을 위해 다수의 건축 공모전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공간의 공급 및 계획에서 건축 분야의 역할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건축적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 단계에서조차 방대한 도시 정보와 건축 정보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GIS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공간 정보는 건축물의 3차원 형상과 속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림 1〉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도쿄 3차원 도시 공간 정보



〈그림 2〉 버추얼 어스 기반의 실시간 3D 도시 경관 정보 서비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정보와 도시공간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어, 상업적인 활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어스 시스템의 경우, 미국 주요 도시의 위성영상, 지형정보, 건축물 정보를 결합하여 고품질의 3차원 가상 도시 공간을 구현해 내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3차원 가상 도시 공간 시스템은 개방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지원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도시 전반의 건축 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정보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건축물과 도시개발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관한 정보

과거와 달리 최근의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정책 수립과 계획 과정에서 결과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시스템의 고도화에 의해, 건축물과 도시공간 공급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 정책 수립에서도 주민참여와 같은 협력적 계획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도시공간 공급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건축·도시 공간 정보의 관리에서 시간적인 흐름과, 관련된 주체들의 활동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에서 완성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의 계획 및 업무 추진과정과 프로젝트 완료 이후의 변경 및 멸실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당신도시 개발 같은 국책 사업에도,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비율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변화는 이후의 신도시 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준공 이후의 면적비율 변화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기존 신도시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과 설계, 사용 및 멸실에 대한 정보 관리의 강화는, 국토정보화 사업의 전반적인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리정보 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은 지역마다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보의 신뢰성 관리가 쉽지 않다. 하지만 도시의 건축물 생성과 멸실 정보 및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지리정보 구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특정 시점의 지리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사문화적 건축·도시공간 정보

건축·도시공간의 경쟁력 향상에 역사적 자산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개방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기능적 품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시공간이나 건축물이 담고 있는 고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전해야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전은 시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감성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전은 우선 실재하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과 건축물과 도시 공간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보존하는 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보존하는 것은 곧 계획 및 조성 과정의 기록 및 주변 정황을 표현해 주는 사진이나 신문 기사와 같은 정황 정보의 수집 및 관리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도시공간의 계획 및 설계에서 역사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지역의 관광 활성화 등에서도 기본적인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의 작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도면과 기록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축가의 작업 과정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계획과 실제 설계 과정을 드러내는 정보로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전시·출판 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정보 가치가 있다. 따라서 건축가의 작업 기록물 또한 국가적인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의 구축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정보 인프라의 유형과 특징

정보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 기관은 크게 보아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으로 분류되며(김기현, 2000), 이들은 각각 지식정보 생산의 일련의 과정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친숙한 사회적 정보유통 기구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능은 문헌 정보의 관리이며, 일부 기록물관리 기능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박물관의 경우 서적이거나 기록물의 관리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artifact)의 소장과 전시가 주된 기능이기에 때문에, 비언어적 콘텐츠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박물관 개념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단순히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박물관의 소장품은 특정 시기의

기술수준이나, 생활상, 심미적 취향 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사적 증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카이브는 지식정보 생산의 근거가 되는 원천기록물의 집합체, 혹은 이를 수집·보존·관리하는 기관이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현대적인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 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자료 중에서 지속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소장·관리하여, 지식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카이브의 기능은 처음에는 도서관의 일부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배재은, 2005). 아카이빙의 주요 대상은 업무 과정의 기록과 보고서, 도면 등이며, 이들은 주로 어떠한 사건 혹은 현상을 표현하는 증거의 가치를 가진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개념은 실제의 시설에서는 혼재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건축전문 아카이브의 경우 전시 기능을 겸하여 박물관과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도면이나 지도와 같은 콘텐츠는 심미적·문화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분야의 잡지나 서적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아카이브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 및 도시 분야의 경우, 원천기록물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인하(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의 경우 중요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및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자료 수집에만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 분야의 전문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이 생산된 지식 정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건축물과 도시 공간과 관련된 기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가 선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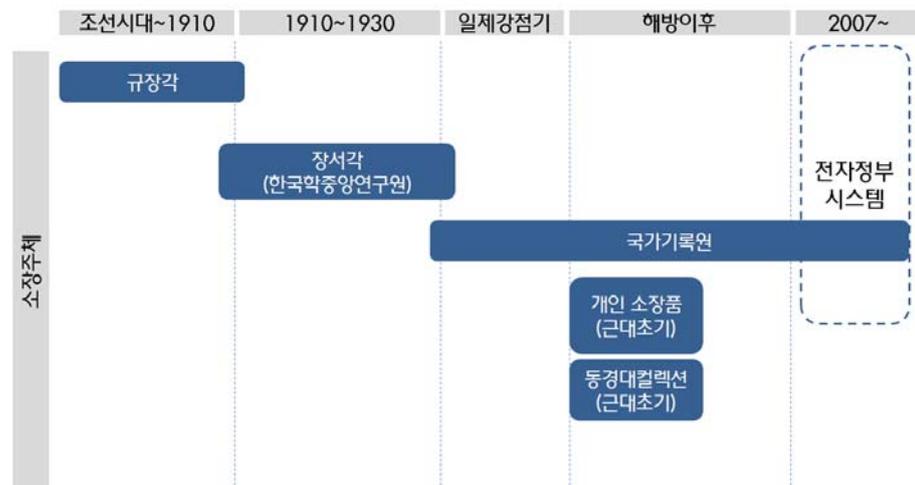
1. 역사적 건축·도시 기록물의 관리 현황
2.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기록물 관리 현황
3. 민간기록물 관리 현황조사
4.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보의 문제점

(a u r

국내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현황

1 역사적 건축·도시 기록물의 관리 현황

정보 생산의 시대별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 기관으로는 규장각, 장서각, 국가기록원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은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에서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은 이러한 역사 기록물의 일부로 보존되고 있다.



〈그림 3〉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건축도시 기록물 관리 현황

규장각은 1776년에 궁내에 설치된 오늘날의 국립도서관으로서 국가적 규모로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 간행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매일의 정사(政事)를 기록한 일성록은 정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현재 총 15만 1519권의 책이 광복 후 서울대학교에 인수 관리되고 있다. 장서각은 1911년 이왕가에 의해 설립된 이왕직도서관으로 소장 도서는 역대 왕들의 어제 및 선원보책 외에 각 군영의 구위대 수장도서, 무주 적상산사고의 이관도서 등 18,600종 88,700여책에 이른다. 1981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동경대 컬렉션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이 반출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중 남겨진 47책을 2006년에 국내로 환수한 것이다. 이들은 성종·중종·선조 3대 왕대의 실록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시대의 일부 기록물과, 일제강점기 기록물, 정부수립 이후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 중, 일제강점기의 도면 컬렉션은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중이며 이 중 학교건축 컬렉션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학교 건축도면 컬렉션

2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기록물 관리 현황

1) 국가기록원의 건축·도시관련 기록물 보유 현황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정부수립 이후의 비현용 기록물 중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있다.

〈표 2〉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보유현황

구분	시대별	보유량 [권,매]	주요 내용
문서(권)	소계	1,343,931	
	조선시대	1,193	조선왕조실록, 구황실문서, 기타
	일제시대	40,500	조선총독부문서 등
	정부수립후	1,302,238	각 기관 영구보존 이관기록물
도면(매)	소계	1,238,306	
	조선시대	6,936	기상관측도 등
	일제시대	941,138	지적원도,국유림경계도,삼각원도 등
	정부수립후	290,232	광구도, 청사설계도, 각종공사설계도 등
카드(매)	소계	5,290,190	
	조선시대		
	일제시대		
	정부수립후	5,290,190	인사기록,병적카드,공무원연금카드 등
대통령재가문건(건)	소계	220,467	역대 대통령재가문서

출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관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비현용기록물을 기록 생산 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선별·관리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기 때문이다. 박찬승(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에서 보유중인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된 도면 기록물의 양은 일제강점기 때의 도면 보유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현용 기록물의 관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e-AIS)

현용 건축행정 기록물의 경우, 빠른 속도로 전산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은 2007년도 세움터 도입에 의해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어, 현재 서울시의 경우 모든 건축인허가 업무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행정 관련 도면과 문서가 원칙적으로 전자화되어 영구 보존되도록 되었다.

건축행정정보화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전자도면의 실시간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시스템의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건교부 웹포털, 자치단체 웹포털, 건교부 인트라넷, 자치단체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된다.

건교부 웹포털에서는 전국단위의 각종 통계정보, 시험정보, 취업정보 등이 제공되고 민원의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에서는 건축행정의 일선으로서 각종 민원서비스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민원인이 직접 간이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간이도면작성기 제공, 도면관리를 위한 표준작성지원 도구를 통해 테두리 작성, 도면번호와 도면명 생성, 표준심벌 다운로드, 레이아웃 생성과 일괄변경 기능 및 등록접수도구를 통한 첨부설계도서의 파일포맷, 파일명의 자동변환, 인증기능, 암호화와 압축을 포함한 온라인 업로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인트라넷을 통해서서는 부서간의 업무협업 및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건축인허가 추세비교, 유형별 동향분석 등의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정책지원(DW:Data Warehouse)이 제공된다. 자치단체에서는 건축인허가 관리, 협의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사업자 관리, 주택인허가 관리, 도면관리, 통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자부의 G4C시스템과 연계되어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유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설계경기 관련 정보

설계경기는 최근, 주요 건축물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규정상으로 설계경기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발주하는 방식이다. 설계경기를 통해 일반적인 생성정보 유형은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모형 등이다.

설계경기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 과정에 국한되어 인식하기 때문에 제출받은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게 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의 작품도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설계경기에 관련된 행정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된다.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공모전을 통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공모전 이후 결과물로서의 책자만이 발간되고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자료들은 관계자에 의해 보관되고 모델의 경우 수장 공간의 부족을 겪고 있다. 설계경기의 결과물 규격 역시 공모전 이후의 활용 및 보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사업 및 제출도서 현황

사업명	참가작	수상작	제출 도서의 종류
도시개념 국제공모	351 (국내 169, 국외 182)	10 (국내 3, 국외 7)	- 제안설명서 - 패널 (A1 6개) - CD-ROM (제안서, 패널, 이미지 파일들)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http://www.mppat.or.kr	56 (국내 25, 국외 31)	6 (국내 5, 국외 1)	- 서류봉투(참가자신원확인서, 건축사면허증사본, 발주처조건동의서, 전시출판에 관한 동의서) - 계획설명서 - CD-ROM - 패널 (A1판넬 9장, 조감도)
행복도시 첫마을사업 http://first.jugong.co.kr	56 (국내 39, 국외 7) 등	18 (국내 11, 국외 7)	- 모형 (1,400mm × 1,100mm × 450mm) - 설계도판 (A0 2장) (1,500mm × 2,000mm) - 설계도면 A2 (490mm × 524mm) 25부 - CD 또는 DVD 별 5매 (설계도판, 설계도면 수록)

일부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물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설계공모 자체가 디자인안에 집중하고 있고 보완 자료로 설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거나 주제에 대한 고민에 대한 자료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논의과정에 대한 일부 자료는 각종 정책백서 및 정책연구보고서, 학회지 발표 논문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4) 건축·도시 관련 정보화 포털 사업

최근, 사회 전반에 분산되어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지식기반을 강화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된 정보를 종합하여 지식으로 활용하려는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정보화 포털 사업 혹은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주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관련 협회의 정보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포털(<http://www.city.go.kr>)은 국토해양부의 정보화포털사업 중 하나로 주민주도의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정보 및 지식을 서비스하고, 상호의견수렴 및 교환을 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공공참여공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정보, 정책지원, 도시참여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도시정보에는 지자체정보, 신도시/도시개발/도시재생 등에 대한 전문지식의 소개가, 정책지원에는 각종 정책자료 및 정책뉴스의 제공 및 정책참여 지원이, 도시참여에는 블로그와 카페 활동의 지원과 국내 및 해외 도시탐방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및 하부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건교부주관부서:기술정책과)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다양한 건설정보화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추진해 온 정보화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표 4와 같다.

이 밖에, 서울대학교의 건설정보연구센터에서도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설정보연구센터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동아시아 건축정보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는 건축·도시분야의 지식정보 유통기관으로서 건축·도시관련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 및 저널, 세미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건축·도시 분야의 모든 관련주체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동아시아 건축정보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정보교류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일본의 연구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각종 문헌서비스, 각종 행사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정보화 사업 개요

(단위:천원)

사업명	발주기관	예산	기간	성격	주요내용
E-건설문화박물관구축을 위한모델개발및운영방안 마련사업	건설교통부	336,000	2006~2007	사이버박물관구축	건설문화관련 내용
건설교통기술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건설교통부	10,215,000	2001~2007	통합DB구축	건설교통관련 연구보고서 건설공사기술 정보
사회간접자본(SOC)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395,000	1999~2003	DB시스템 개발	
건설기술연구개발지원 첨단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건설교통부	168,984	1997~1998 1999~2000	전자도서관	건설기술관련 문헌
건설기술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정보통신부	1,810,000	1999~1999 2000~2001	전자도서관	건설기술관련 학술문헌
과학기술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72,500	1999~2003	문헌자료구축사업	학술문헌 및 기술정보

한편, 서울대학교 건설정보연구센터에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주)산업 도서출판공사와 협약을 통한 현대건축물관련 정보제공과 GIS연계서비스가 제공되고, 서울대건축사연구실에서 제공되는 전통건축물 서비스 및 설계경기 공모전 관련 자료 및 건축답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문화재급의 건축물 정보에 대한 정보화 포털 사업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시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건축물은 건조물과에서, 근대를 포함한 이후의 기록물은 근대문화재과로 2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학술연구정보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통건축관련 연구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다. 문화재정보센터¹³⁾를 통해 통합된 문화재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다양한 활동과 구축된 정보에 비해서 건축도시 분야를 통합하는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는 근대건축 및 고건축물과 관련한 자료 구축을 시행하였다. 지역별로 현황조사가 시행되어 지역별 분포 현황이 확보되었다.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정보화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분야 아카이브 구축시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문화재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info.cha.go.kr>

민간기록물 관리 현황조사

3

1) 조사 개요

건축·도시공간의 계획 및 설계와 조성 단계에는 민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무소와 건설사 등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생산된다. 이 때문에,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에서 이들 민간 부문의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설계 사무소의 작업 기록과 도면 등은 정보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설계 이론과 사상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건설회사는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 및 조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기록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정보원이 된다. 이들 건설사의 프로젝트 기록 및 시공 과정의 기록물은 공공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의 구축에서 공공의 기록정보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등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설계사무소, 중소형 설계사무소, 모형 제작업체, 시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조사 결과를 업체별로 정리한 결과를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대형 설계사무소의 정보관리 현황

대형 설계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에서 업무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전담팀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기간과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정보시스템 구축의 일차적 목적을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두고 있다.

14) 자세한 조사 결과는 부록 1 참조

대형 설계사무소의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작업특성 상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참여시 프로젝트별 인적구성과 각 개인의 작업량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연말에 프로젝트별 인원투입과 인건비, 진행기간 등을 통계자료로 정리하여 회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인의 경력 관리, 수당의 산출근거,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들 자료는 자연스럽게 홍보물에 활용되며, 신생 사무소의 경우 대표작품 위주로 인터넷에서 전시하나,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사무소의 경우 정기적인 연감제작 등에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무소만이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경우 전사적 차원에서 최종결과물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팀(소)별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중간위계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일차적으로 프로젝트 담당자가 디지털정보의 정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내에서 자료검색이나 자료열람 등이 지원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료의 외부유출 위험에 유의하여 시스템을 고안한다.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하나의 파일을 복수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의 경우는 작업 결과물이 모두 반영된 최종파일을 쉽게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간과정에 거의 유사한 파일이 급증하여 보존가치가 작은 파일까지 저장하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의 경우 작업이 끝난 후 최종 결과물만 남기고 나머지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 그 결과 설계단계의 진행 프로세스를 추적할 자료가 거의 남지 않는다.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물 중, 모형은 대부분의 경우 공간부족의 이유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외적으로 큰 상을 받았거나 중요한 작품 몇 개만 로비나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사무실 내부에 방치되는 일부 모형들은 부정기적으로 정리하여 파쇄한다. 자료실은 주로 예전의 도면류 등이 도서형태로 보관되고 전문서적도 같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따라 개방의 정도와 시설 수준이 다양하다. 이러한 비디지털 정보의 디지털화는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도시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 대형 설계사무소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서구 유럽에서의 전통적 아카이브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업체들은, 이윤추구를 위한 효율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 설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복

잡하고, 프로젝트 결과물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 전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대외기밀사항을 함께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건축·도시정보의 수집단계에서 피수집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세밀한 분류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3) 중소기업 설계사무실

정보 관리의 목적은 대규모 설계사무실과 같이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있다. 정보관리시스템은 회사의 자원, 인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인 경우 전담팀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인적지원은 약한 편이다. 소규모의 경우는 전담원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규모 설계사무실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버나 DVD, CD의 활용은 대부분 보편적이며, 사무소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외의 방식 활용에 차이가 있다. 파일 생성, 정리 방법은 큰 사무실과 대략적으로 비슷하나, 전담 직원이 없으므로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디지털정보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시 비슷한 용도의 사례 참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것도 초기 작업에서는 주로 출력되어 있는 도면집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는 대부분 장소의 부족으로 제대로 정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모형은 수장 공간을 많이 요구하므로 대표 프로젝트를 입구나 복도, 홀 등에 전시하고, 이외에는 사무실 내부에 방치한다. 피조사기관 중 두 곳이 자체 창고를 소유하여 모형을 보유하고 있다. 예전 도면이나 책 등은 주로 공유공간에 보관하거나 창고에 보관한다.

중소형 설계사무실은 대형 설계사무실에 비해 프로젝트의 규모나 작업과정의 복잡도가 덜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업무수행이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전사적 자원관리의 특징을 갖는 대형 설계사무실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비해 덜 전문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가짐을 의미하며, 자료의 유실위험이 더 크지만 현실적으로 자료의 삭제 및 폐기 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자료가(방치된 채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설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 성향이 강한 대형 설계사무소에 비해 중소기업 설계사무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전수보존의 개념이 강한 곳도 있다.

건축·도시 정보인프라 구축에 중소기업 설계사무실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 사무실에 체계화된 정보관리시스템이 거의 부재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성을 갖는 일부 설계사무실을 샘플로 선정하여 예비조사

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당 설계사무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함께 진행하여 시간, 인력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대형건설회사

이들 회사의 정보관리의 주요목적은 크게 유사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비해 사례구축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도모하는 것과 하자발생시 민원 처리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정보의 경우 별도의 전산사업을 진행하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물은 행정처리를 위한 것이고 건축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한 주요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의 구체화된 자료는 관리되지 않는다. 설계관련 문서는 건설회사의 설계팀에서 관리되고 있고,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팀별로 관리되고 최종 파일만을 서버에 관리하고 있다.

비디지털정보는 과거 프로젝트의 경우 제분하여 자료실에 보관하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도서는 폐기하며, 과거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각각의 중요성보다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진행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리한 정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착수시 비슷한 용도의 사례를 검색하여 참조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각종 행사나 내부 시공지침 등의 자료도 일부 구축하여 관리된다. 행정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지만, 직원 개인의 업무 진행 스케줄 관리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유사 프로젝트 검색에서 직원이름, 프로젝트 명으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자료인 도면이나 원본문서는 권한을 제한하여 회사의 노하우가 누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자료보관의 판단기준은 재활용의 가치이다. 이를테면 각종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연감, 건설지 등 회사 홍보자료의 제작 및 발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단계의 자료보관은 일차적으로는 유사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회사의 자산 및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5) 모형제작 전문 업체: (주)기흥성

(주)기흥성은 국내의 대표적인 모형 제작 업체로서, 40여 년간 국내의 주요

민간 및 국책사업의 모형제작을 담당해 왔다. 현재 (주)기흥성은 모형제작으로부터 디자인 조형물 시공과 전시장 기획·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기흥성의 CEO인 기흥성 본인은 1967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재직 당시, 서울 구로동 무역박람회 전시장 모형 제작을 담당한 이후, 국내외 중요 프로젝트에서 모형 제작가로 명성을 쌓아 왔다. CEO 개인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주)기흥성은 한국 현대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까지 주요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는 독보적인 건축 모형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흥성 회장 본인은, 국내의 주요 건축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건축가에 대한 인물 정보를 갖고 있다. 수많은 미 실현 계획에 참여하여 모형을 제작하여 사업의 배경과 주변 사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소장품은 총 3500여점으로 주요 소장품으로는 금강산 모형(10×20m, 30조각으로 나뉘어 양평창고에 보관중), 경복궁, 황룡사 9층탑 등의 한국 건축 모형, 총독부 청사 모형(지금은 철거되어 2차 기록으로 중요함) 등을 들 수 있다.

자체적으로 양평에 대지 5000평, 연면적 450평과 별도의 작업공간 100~150평 규모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 착공하였으나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2007.12.)도 진행중이다. 자료구축의 목적은 개인사의 기념과 후세를 위한 기록보존이다.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보의 문제점

4

이 장에서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부문 정보 및 민간부문 정보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부수립 이후 근·현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수립 이전의 기록물들은 문화재적 가치에 의해서 문화재청이나 학술기관에서 수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된 기록이나 정보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록물이나 민간 기록물에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1세대 건축가에 의한 건축물이나, 과거의 도시개발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건축물과 도시공간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중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서 '현용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술 연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생산되는 건축행정기록물들은 잘 관리될 경우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 도입 이전의 행정기록과 준공도면 등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포털 사업의 경우, 지식 정보의 관리와 유통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관 학회와 대학교의 학술적 성과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 매우 성공적인 정보화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완결된 지식정보가 아닌 지식 생산의 근거가 되는 원천정보에 대한 정보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기록물 관리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설계 사무소와 건설사 모두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모형이나 스케치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계획 및 설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설계 업무에서도 작업의 중간 결과물이나 회의 내용 등은 교육적·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해외사례 연구

1. 해외사례 연구개요
2. 사례연구
3. 해외사례의 시사점

(a u r

해외사례 연구

1 해외사례 연구개요

1) 기본방향

국내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관리는 주로 전산정보 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전산정보를 포함한 기록정보 관리의 개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는 주로 건축물 기록정보 관리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방문조사와 기관 관계자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 선정

해외의 건축 기록 관리 전문기관의 사례는 국제건축가협회가 규정한 건축박물관의 리스트를 토대로, 국제건축박물관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chitectural Museums: ICAM)과 건축센터네트워크(Architecture Centre Network)에 동시에 등록된 기관들 가운데 국가별로 대표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제건축박물관연합(ICAM)의 경우는 소장(collection) 중심, 건축센터네트워크(ACN)는 교류 및 연구, 교육 중심의 전시프로그램으로 구별

해 볼 수 있으므로, 선별된 사례는 모두 소장, 전시, 교류 및 연구,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박물관인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미국과 아시아의 대표 사례 몇 가지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해외 박물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5〉 국제건축가협회(UIA)에 등재된 건축박물관 리스트

대륙별	국가별	건축박물관 이름	ICAM 등록	ACN 등록
유럽	오스트리아	Architektur Zentrum Wien - AZW	○	○
		Haus der Architektur Graz - HAD		○
		Kunstlerhaus		
		Osterreichisches Museum fur Angewandte Kunst		
	벨기에	Fondation pour l'architecture		
	크로아티아	HAZU - Hrvatski muzej arhitekture		○
	덴마크	Dansk Arkitektur Center - DAC	○	○
		Samlingen af Arkitekturtegninger		
	에스토니아	Museum of Estonian Architecture	○	○
	핀란드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	○
		Alvar Aalto Museum	○	○
	프랑스	Centre Pompidou	○	
		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 IFA	○	
		Arc en rêve centre d'architecture		○
		Pavillon de l'Arsenal		○
		Fondation Le Corbusier		
		La Galerie d'Architecture		
		Maison de l'Architecture		
		American Center		
		Archives d'architecture du XXème siècle		
	Musée Nicolas Ledoux			

표계속) 국제건축가협회(UIA) 등재된 건축박물관 리스트

대륙별	국가별	건축박물관 이름	ICAM 등록	ACN 등록
	독일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 DAM	○	○
		Vitra Design Museum	○	
		Deutsches Architektur Zentrum - DAZ		○
		Bund Deutscher Architekten Galerie		
		Architektur Galerie		
	이탈리아	Centro di Architettura		○
		Fondazione Angelo Masieri		
		Museo virtuale di Architettura		
	노르웨이	The Norwegian Museum of Architecture		
	포르투갈	Galeria Comicos		
	스페인	CCCB		
		MACBA		
		Fondation la Caixa Centre culturel		
		Galeria de Arquitectura		
		Instituto espanol de Arquitectura		
유럽	스웨덴	Swedish Museum of Architecture	○	○
	스위스	Schweizerisches ArchitekturMuseum	○	○
		Architektur Forum		
		Galerie Rivolta		
	네덜란드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 NAI	○	○
		The Berlage Institute		○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 Maastricht		○
	터키	Museum of Architecture	○	
	영국	The Lighthouse	○	○
		The RIBA	○	○
The Architecture Foundation			○	
Royal Academy of Arts				
The Architecture Centre				
9H Gallery				
Design Museum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표 계속) 국제건축가협회(UIA) 등재된 건축박물관의 리스트

대륙별	국가별	국제건축가협회(UIA)에 등재된 건축박물관	ICAM 리스트	ACN 리스트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ARCA		
	캐나다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 CCA	○	○
	미국	A+D Architecture and Design Museum	○	
		The Museum of Modern Art	○	
		The Heinz Architectural Center	○	
		National Building Museum	○	
		The Octagon Museum	○	
		Chicago Architecture Museum		
		The Chicago Athenaeum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Max Protech Gallery I and II		

〈표 6〉 해외사례 박물관 선정 리스트

지역	국가	박물관명
유럽	네덜란드	네덜란드 건축협회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 NAI
	독일	독일 건축박물관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 DAM
	프랑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 la Cite de l'Architecture et de la Patrimoine 20세기 건축기록물보관소 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ecles
	영국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The Lighthouse 영국건축도서관 RIBA(British Architectural Library)
	핀란드	핀란드건축박물관 Suomen Rakennustaiteen Museo
아메리카	캐나다	캐나다 건축센터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 CCA
	미국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National Building Museum
아시아	중국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Singapore City Gallery - URA

2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건축협회

정식 명칭은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NAi)이며, 정부 주도의 설립과정을 거쳐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1988년에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고, 1993년 로테르담으로 이전하면서 NAI의 공간을 개방하였다. 단지 건축박물관이라기보다는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복합 건축센터이자 문화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지명현상(1988년)으로 진행된 설계공모에서 Jo Coenen의 안이 당선되어 건축되었다.



NAi는 1993년 아카이브(Archive), 도서관, 전시관을 중심으로 연구시설, 출판 및 건축문화교육(School Atelier), 국제포럼 등을 포함하는 복합프로그램 운영체제로 로테르담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로테르담의 Sonneveld House가 NAI의 부속건물로 합병되었다. 2005년 로테르담에 Open Model Storage를 확보하였는데, Van Nelle Design Factory 안에 NAI가 보관하고 있던 컬렉션 가운데 400여점을 일반에 상시 공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 마슈트리히트에 NAI Maastricht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NAI의 지점박물관의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서 주로 준상설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NAi는 가장 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 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네덜란드 최대의 문화기관으로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그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고 담론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건축문화기관이라 할 수 있다.

〈표 7〉 NAI 시설현황

구분		규모(m)	비고
전체		9,230	전용면적 기준(총연면적 13,345m)
수 장 공 간	작업실 및 수장고	4,500	
전 시 공 간	대형전시관 / 상설전시관 / 특별전시관	1,800	Sonneveld House와 Open Model Storage 제외
교류연구공간	강당 / 회의실	380	강당: 최대 170명 수용
지 원 공 간	카페 / 서점 / 도서관 교육용 아틀리에	1,500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연구센터	1,050	

2) 독일 건축박물관

정식 명칭은 DAM(Deutsches Architektur Museum)으로서 운영주체는 재단이다. 1979년 하인리히(Heinrich Klotz)가 창설하였으며, 1984년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전시와 건축담론, 자료수장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설계는 1979년 Oswald Mathias Ungers에게 의뢰하여 1984년 완공되었다. 조직규모는 박물관 부문, 아카이브부문을 포함하여 20명이다. 관장 1명, 도서관 1명, 작업실 1명, 큐레이터 4명, 아키비스트 1명,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아카이브 책임자는 Inge Wolf인데 미술사를 전공하고 건축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있다.

DAM은 1984년에 슈마인카이(Schaumainkai) 거리에 설립되었는데, 현대건축, 국제건축에 관한 기획전시와 더불어 지역적 이슈에 관한 소통과 담론형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5년 후인 1989년 헤데리히스트라세(Hedderichstrasse) 거리에 자료관이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20세기 건축자료(도면 180,000장, 모델 600점 등)를 중심으로 수장하고 있다. 1989년 도서관시설이 추가되어 장서 20,000권, 국제잡지 60여종 등을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개보수 및 재조직을 거치면서 ('From primordial hut to skyscraper')라는 타이틀의 상설전시를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개방하고 Ungers의 원안에 충실하게 개보수하였다. 2006년 상호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건축 관련 단체 및 조직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자료는 1979년 하인리히가 주요 건축가들을 방문하여 수집해 왔고,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것도 수집해 오고 있다. 주로 건축가들의 기증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소장자료의 목록에 대한 디지털 작업

은 이루어졌으나 보관품에 대한 디지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활용계획을 구상중이다.

규모는 작지만 전시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독일의 다른 박물관과의 네트워크로 자료관 및 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추가로 관련 단체의 기부금과 기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간 총 예산은 약 1,800만 유로 정도이다.

〈표 8〉 DAM 아카이브 현황

자료형태	보 관 현 황
모델 (600 개)	모델은 전시용품으로 대여하고 있음 모델은 자주 파손되어 별도의 모델 수리실이 있음
도면 (18만 장)	간단한 수복작업을 거쳐 보관 물리화학적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있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맡기고 있음 트레이마다 보관 자료 리스트를 같이 보관
도서 (2만여 권)	1800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적 60여 종류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구독중
기타	편지, 의자 등 가구 소품

〈표 9〉 DAM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3,155	전용면적 기준(총연면적 4,500m ²)
수 장 공 간	모형보관실 / 도면보관실	600	자료관(Hedderichstrasse) 시외창고 2개소
전 시 공 간	대형전시관(480m ²) 1.0G/2.0G/3.0G 전시실(440m ²)	920	박물관(Schaumainkai)
	아트갤러리 / 전시실	1,200	자료관(Hedderichstrasse) 현재는 수장용으로 임시사용
교류·연구공간	오디토리움	115	박물관(Schaumainkai)
지 원 공 간	도서관	130	자료관(Hedderichstrasse)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190	자료관(Hedderichstrasse)

3)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

정식 명칭은 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이며 정부 주도의 설립과정을 거쳐 현재 재단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대건축의 창의성을 진흥하고 프랑스 건축유산을 알리고 아끼게 하며 여러 층의 대중과 건축을 함께 하게 위하여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 및 역사가,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프랑스 건축계에 세계로 향한 창을 제공하며,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박물관의 연혁은 다소 복잡하다. 1980년에 대통령 발의로 프랑스 20세기 건축의 이해와 비평을 위하여 프랑스 건축협회(IFA, Institut Franais d'architecture)가 설립된다. 이후 1988년 당시 문화정보장관인 카트린 트라우망의 요청으로 IFA, 에콜 드 샤이오(Ecole de Chaillot), 국립박물관(내 관련분야) 간의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 이것의 성과물로 2007년에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도시속의 건축, 주거속의 건축, 건설로서의 건축, 동일성과 대표성, 건축의 변형과 형상, 건축교육과 계획 등의 주제로 샤이오궁(Palais de Chaillot)에 설립되었다. 현재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이 입지한 건축물은 1878년 세계박람회장으로 지어진 것이며, 1937년 세계장식예술박람회를 위해 개축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장 프랑소와 보댕의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은 역사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수집활동 및 새로운 내용의 구성 등을 통하여 현대 건축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합건축예술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기존의 프랑스 문화유산 박물관의 자료는 12세기 건축에서 시작하며, 근·현대 건축자료는 최근 두 세기 동안의 건축동향을 다루고 있어, 상호 이질적인 전통과 현대의 자료들을 적절한 관계설정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프랑스 현대건축을 테마로 고건축과 현대건축을 전반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이 소개된 뉴스 등의 각종 영상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표 10〉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 박물관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22,660	연면적 기준
수장 공간	작업실 및 수장고 20세기 기록보존소(타지역에 위치, 돌비약)	2,540 (2,000) (9,000)	* 20세기 기록보존소의 면적은 연면적임 시외곽 참고
전시 공간	중세 및 르네상스(5,850m ²) / 근대 및 현대(2,167m ²) 기획전시실(1,770m ²) / 대형전시실(1,440m ²)	11,230	
교류·연구공간	오디토리움(975m ²) / 세미나(1,277m ²) 연구센터(945m ²)	3,200	최대 170명 수용
지원 공간	도서관(1,736m ²) / 대민 서비스(1,630m ²) 식당 및 서점(455m ²)	3,820	
운영관리공간	IFA(1,494m ²) / 오피스(374m ²)	1,870	

4) 20세기 건축기록물 보관소

정식 명칭은 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ecles이며, 운영은 건축과 문화유산 박물관의 산하기관에서 맡고 있다. 1986년에 건축유산의 보호, 복원 그리고 동시대에서의 창안, 일반대중에게 건축의 수준을 알리고 건축역사의 자료를 수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직규모는 15명이다.

소장자료는 건축가자료, 도서, 정기간행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00여 명의 건축가의 각종 도면, 스케치, 사진, 서신, 모형 등을 소장하고 있다. 파리를 중심으로 20세기의 활동이 끝난 건축가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면의 경우 반입된 상태로 보관하며, 전시를 위해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10,000권의 도서와 국내외 35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로 1960~80년대 자료와 정부 아카이브에 속한 정부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주로 기증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료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편, 도면 등이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자료구입은 피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정기간행물인 COLONNES를 발간하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폰즈(Catalogue des Fonds, 보존자료의 목록 분류 상세하게 소개), 악쉬브(1a Collection Archives, 미소개된 건축가 작품 소개), 악쉬텍트(1a Collection Architectes, 저명 건축가의 작품 선별 소개), 빌(1a Collection Ville, 자료에 의해 재조명된 도시계획과 건축역사 속에서의 도시를 소개) 등이다. 이외에도 월간신문을 발행하는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소식(강연, 세미나, 전시, 교육답사 등), 최근의 건물, 출판물, 이벤트 등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다.

〈표 11〉 20세기 건축물 기록보존소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2,000	
수 장 공 간	자료보관(지하1,2,3층)	-	대형규격도 보존
전 시 공 간	-	-	
교류·연구공간	열람실 연구실	-	20인 수용가능
지 원 공 간	부속실	-	
운영관리공간	일반안내와 보관소 리셉션	-	

5)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정식 명칭은 The Lighthouse로서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방식으로 운영된다. 1999년에 글래스고(Glasgow)에 설립되었으며, 창의적인 전시, 교육,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 디자인같은 창의적 산업의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장려를 촉진하는 것이 기관의 목표이다.

라이트하우스는 1994년 Stuart Macdonald의 초기 구상안이 1996년 Glasgow Design Festival 기간 중 승인되어 1999년에 Mackintosh의 글래스고헤럴드 신문사 사옥(Glasgow Herald Newspaper Office)을 개조하여 설립되었다. (1998년 Page & Park Architects에 설계를 의뢰하여 1999년에 완공)

상설전시로는 C.R. Mackintosh 외에도 다양한 혁신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중요도를 두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동영상 및 웹페이지의 구축을 기반으로 체험 중심으로 전시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2〉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	
수장공간	Charles Rennie Mackintosh Interpretation Centre	-	
전시공간	기획전시실	1,400	
교류연구공간	컨퍼런스 센터	-	
	교육센터	1,000	워크숍, 컴퓨터 Lab, 갤러리, 도시학습공간
지원공간	식당 / 카페 / 상점	-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6) 영국 건축도서관

정식 명칭은 The RIBA British Architectural Library이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1834년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취지는 '직업적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회적 이윤을 드러냄으로서 건축을 증진하고, 국내외적으로 대중이 건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다. 운영조직은 매우 작아 단 3명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소장자료는 1478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장서 135,000권 이상이며 도면은 1,500만 장의 국제건축물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아카이브에는 책, 정기간행물 등으로 구성된 Sir Banister Fletcher Library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면, 아카이브, 사진을 포함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방대한 자료를 보관 중이다.

정기간행물로는 API(The Architectural Publications Index)를 연 4회 발행하며, 도면, Heinz 갤러리, 마이크로필름과 카드, 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다수의 건축,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들과 교류하고 있다.

7) 핀란드 건축박물관

정식 명칭은 Suomen Rakennustaitteen Museo로서 정부산하기관이다.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Helsinki Forum을 조직하여 커뮤니티(community)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대중의 건축이해를 위하여 건축지식을 수집 및 대중화하며 건축물과 사용자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조직규모는 22명으로서 정직원 17명, 일용직 3명, 프리랜서 2명이다. 1900년 이전의 건축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35,000장 도면을 소장하고 있다.

8) 캐나다 건축센터

정식 명칭은 CCA(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로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979년에 몬트리올에 설립되었으며 10년 후인 1989년에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사회 안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축현장에서 연구를 장려하며, 디자인 실무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1984년 Peter Rose가 설계하여 1989년에 완공되었다.

1979년에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가 박물관과 연구센터 기능을 갖추고 설립된다. 이후 1982년부터 전시운영을 시작한다. 당시의 대표적 전시는 'Cities of Artificial Excavation: The Work of Peter Eisenman'였다. 1990년대 초 전시기능이 확대되면서 'The American Lawn: Surface of Everyday Life(1994)'등의 전시가 성공하면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하였다. 1997년 연구기능이 강화되어 공식 시설로 확대되었으며 Visiting Scholars Program, Mellon Senior Fellowships, Mellon Lecture program(Andrew W. Mellon Foundation과 공동으로 수행)이 시작되었다. 2004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Cities Program과 공동으로 공모전 'Stirling Memorial Lecture on the City competition'을 시행하는 등 건축행사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표 13〉 캐나다 건축센터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14,900	
수 장 공 간	작업실 및 수장고	-	
전 시 공 간	전시관	-	
교류·연구공간	오디토리움 / 회의실 극장 / 연구센터	-	오디토리움 : 250명 수용 Visiting Scholars Program : 1997년부터 운영
지 원 공 간	카페 / 서점 / 도서관	-	단행본 20만권, 정기간행물 4,500종 도판/인쇄물 10만점, 사진 55,000점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9)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정식 명칭은 NBM(National Building Museum)로서 재단운영방식이다. 1980년 워싱턴에 설립되었고 1985년 공간을 민간에게 개방하였다. '건축, 디자인, 기술, 건설 및 도시계획을 탐구하고 공표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1980년에 미 연방의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1985년에 몽고메리 맥(Montgomery C. Meigs)이 1880년대에 건축된 역사적 건물을 국립건축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한다. 1999년에 건축된 연구를 통해 건축, 계획, 보존 및 디자인 분야의 이해에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상하는 Vincent Scully Priz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건축물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미국의 업적과 독창성, 장대함, 유동성이라는 미국적 주제를 바탕으로 광대한 자료의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 'Building America'라는 명칭 아래 주택과 주거, 상업과 커뮤니티, 대지와 풍경, 대륙 연계라는 네 가지 주제의 상설전시를 시작하였다.

〈표 14〉 미국 국립건축박물관 시설현황

구분		규모(m)	비 고
전체		15,600	건물정보를 토대로 한 추정치
수 장 공 간	작업실 및 수장고	-	
전 시 공 간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	-	
교류·연구공간	Great Hall	-	96m X 35m(높이 48m) 규모 : 각종 강연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
지 원 공 간	Museum Shop	-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10)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

정식 명칭은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이며 2000년에 설립되었다. 상하이의 과거, 현재의 도시개발 성과와 미래의 도시계획을 전시하고자 건립되었다. 2000년에 도시모형 전시중심의 전시관이 설립되었고 2006년에 체험형 전시공간이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식 검색 플랫폼(information Harbor) 및 체험형 전시공간(Yangshan Deepwater Port Exhibition Sector)이 신설되었다. 전시를 통하여 도시 및 도시문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시공간 내에 대형 상하이도시모형을 전시하고 있으며, 'city, man, environment,

development'을 주제로 층별로 역사·문화(과거), 현재, 미래 기본계획에 대한 전시물들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 또한 건축도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그림 5〉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의 도시모형

〈표 15〉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 고
전체		19,000	지상 5층, 지하 2층
수 장 공 간	작업실 및 수장고	—	
전 시 공 간	전시관	—	상하이 도심 도시계획모형 : 800m ² 과거 거리모형 : 길이 45m
교류·연구공간	자료 검색실	—	강당: 최대 170명 수용
지 원 공 간	전망대	—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11)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정식 명칭은 Singapore City Gallery로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운영하고 있다. URA는 싱가포르 국유지 계획 수립·집행기관으로서 커뮤니티와 함께 활발하고 지속가능하며 특징적인 국제도시를 창조해 나가고자 싱가포르 도시갤러리를 건립하였다. 1999년 URA의 부속갤러리로 개관하였고, 2004년 Interactive 디스플레이와 3D 동영상 기반의 전시프로그램 및 미디어 월(media wall) 등의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명칭 또한 Singapore City Gallery로 변경되었다.



〈그림 6〉 싱가포르 도시갤러리의 도시모형



〈그림 7〉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전시장

〈표 16〉 싱가포르 도시갤러리 시설현황

구분		규모(m ²)	비고
전체		1,400	
수 장 공 간	작업실 및 수장고	-	
전 시 공 간	기획전시실 / 3D Model 전시실 Concept Plan 2001	-	싱가포르 도시모형 : 11m x 11m 과거 거리모형 : 길이 45m
교류연구공간	퀴즈쇼 및 인포메이션	-	
지 원 공 간	휴게실 / 모형실	-	
운영관리공간	오피스	-	

싱가포르 도시갤러리는 싱가포르의 공공정책과 설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동시에 모형전시관과 학생 및 전문가를 위한 전문도서관 등을 운영하면서 싱가포르 건축도시의 미래상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공공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싱가포르의 재개발의 역사와 향후 계획 및 비전을 모형화하여 전시하고 상세한 안내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면 등에 대하

여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조명계획, 유산보전계획 등에 대하여도 공람할 수 있게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3

1) 건축기록 보존의 목적 및 성격

해외사례에서 건축기록시설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기록물을 사용하는 데 원래의 목적을 달리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실현방법에서 각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큰 규모에서 볼 때 기록물을 보존하여 그것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개개인이나 국가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에서 건축가라는 직업이 서구유럽처럼 독립적이지 않고, 그 기록방식이 지금 개념의 도면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동양에서는 건축 분야 자체가 갓 100년이 넘는 수입된 새로운 분야이며 이전의 건축행위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여, 이전의 것은 문화재로 담당하는 부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도 달라 지금의 건축기록물의 개념은 근대 이후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건축의 역사와 그 기록의 역사가 깊고 사회의 문화적 자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는 서구유럽의 국가들은 건축문화재와 지금의 건축이 하나의 맥락에서 같은 기원을 두고 그 기록물과 함께 건축이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건축부가 토목, 건설과 결별하고 문화부에 소속되어 문화재와 건축 교육 등이 같은 맥락으로 관리되어 그 문화적 자본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축 기록물 관리의 성격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건축 기록물 관리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정부의 건축정책의 일환인 경우

네덜란드의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의 경우로 네덜란드 왕립건축가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건축자료의 보존기능 및 자료를 통한 공공의 연구 기능을 지원한다. 수집자료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작품에 국한하고 이를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¹⁵⁾ 1955년에 건축박물관재단이 설립되었고, 1972년부터 네덜란드 건축문헌센터(NDB)가 설립되었으며, 1988년에 주택재단의 합병으로 세 단체의 자원과 조직이 결합되어 지금의 건축박물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료수장 규모와 시스템 부분은 가장 선진적이다.

(2) 근대건축의 자산이 풍부하고 기록물 보존역사가 상당히 축적된 경우

20세기 프랑스의 기록보존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ecles)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1980년에 프랑스 건축협회(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IFA)와 국가 기록원, 그리고 문화부의 협약으로 만들어졌다. 국가 기록원과 건축협회와 인적, 물적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규 직은 공무원에 준하며, 수장의 양과 노하우가 기간에 비례하여 축적되어 있어 언제든지 문화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2007년에 IFA가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산 박물관으로 합치면서 기록보존소도 그의 산하기관이 되었으나 시설의 독립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독일 건축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 Museum ; DAM)의 부설 아카이브센터는 그 박물관과 같이 1979년에 건립되어 시의 지원을 받는다.

두 기관은 유럽의 대표적인 아카이브 기관으로 30년가량 축적된 수집량과 운영 노하우(기록문화는 국가의 기반을 구축할 때부터 중앙의 정책적인 함의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를 가지고 있다. 이 기관들은 유구한 건축의 역사와 풍부한 근대 건축운동을 바탕으로 수집할 대상이 풍부하고 그 질 또한 세계의 근대 건축운동을 선도할 만큼 우수하다. 그만큼 해외에 순회전시나 연구의 사료, 기획전시의 풍부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문화적 자원의 보고이다.

15) 임창복, 김도년, 백경무, 건축 자료 전시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 12호, 2004, p.12.

(3) 시 개발정책의 홍보와 교류가 목적인 경우

이 경우는 전시와 교육, 컨퍼런스 등의 행사적 성격을 많이 띤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청 부속 전시장으로 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을 지닌다. 자체 아카이브시설은 추진중이다. 그에 준하는 경우는 프랑스의 악스날관을 들 수가 있으며 자체 자료실도 있다. 이 시설은 The City Planning Agency of Paris (APUR)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도시개발사의 자료들은 독일의 경우에도 각 시의 도시과에서 기록관리를 한다. 앞의 두 시설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모형을 발전시키거나, 영향력 있는 건축가의 컨퍼런스, 기획전시등을 주기적으로 추진시켜 전문가 및 관련인들, 일반인들에게까지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4) 대학 부설기관과 사설기관 중심의 기록 관리인 경우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수집량과 명성은 세계적이나 활용도는 대중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대학은 당연히 학생과 교수, 연구진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며, 사설 미술관 업계에서는 건축이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여 미술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

(5) 전시 위주인 아시아의 경우

올림픽 같은 국가 행사나 급하게 개방된 국제무대에서 그 위치를 높이기 위해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으며 그 자료나 수장의 시설은 따로 있지 않다. 전시를 목적으로 모형 등을 제작했거나 공모전에서 당선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건축기록의 수집의 양과 질은 국가의 꾸준한 의지와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에 단기간에 그 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지속되기 힘들다.

2) 시설 및 운영

(1) 시설

① 규모 및 인원

유럽의 건축·도시 기록보존 시설은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에 부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국 역시 도서관과 자료실 등이 협회의 부설시설이다. 각 시설은

따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센터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게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적은 수장시설과 약간의 부설시설이 대략 2,000㎡ 정도로 30년동안의 수집으로 수장고 시설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DAM의 경우 시외곽에 1000㎡정도 창고를 보장하였고, 프랑스의 경우는 건축과 문화유산 박물관으로 그 전시대상의 시기적 범위를 확장하면서 유적박물관의 수장고가 따로 있다. 10여년 뒤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에 기관을 구성하고 현대적인 복합시설을 건립한 네덜란드(NAi)의 경우는 4,500㎡의 수장시설 이외에 부속 컬렉션과 열린 모형 창고¹⁶⁾를 추가하면서 그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설립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근대 건축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 수장시설에는 여유가 있는데 수집대상은 자국의 건축이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크다.

근무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이고 핀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여 명보다 적은 숫자이다. 소속된 박물관은 전시시설의 면적과 그 기능들의 복잡도에 따라 150여 명까지 이른다.

② 설립주체 및 운영, 재정

아카이브 사업은 수익 모델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기반사업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③ 입지 및 건설

많은 경우,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이용과 접근의 편리를 위해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하며, 기존 도시 내에서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존의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건물 자체의 특수성을 갖지 않는다. 전시시설과 분리되어 설립되는 경우는 적절한 접근성이 있다면 입지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단, 도시내부에 관련학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는 시설을 사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줄어들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 Open Model Storage: 네덜란드 건축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건축 모형 400여 점을 2005년 Van Nelle Design Factory 내부에 이전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유명한 건축가의 초기 연구 모델부터 최종 모델까지 다양하다. 수장고 전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승수, 조임식, 네덜란드 NAi-Berlage Institute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씬지에서 Open Storage 형식으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④ 시설의 복합화와 분산

대부분의 시설들은 별도의 건물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공간이 한정되어 자연스럽게 전시공간과 아카이브 공간이 나뉜다. 전시공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방문하고 비교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분리 배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의도적인 분산 배치이기보다 전시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면적에 한계가 있거나 도심의 가장 비싼 지역에 있을 경우 수장 공간을 전부 같이 배치할 타당성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같이 건축한 경우는 NAI가 대표적이다. 주변의 건축 밀도가 낮고 새로 신설한 경우이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적인 효과보다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는 연구센터와 밀접하게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장고와 열람시설을 만들어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 사례는 20세기 프랑스 건축기록물 보관소로 이 기관의 중요한 전시물들은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 du patrimoine)에 상설전시로, 나머지 아카이브들은 그때 기획되는 전시내용에 따라 지원된다.

(2) 운영

① 전문 인력에 의한 관리 및 양성 프로그램 필요

외국의 사례에서는 건축을 예술사에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어서 예술사 전공자나 아카이브 전문가들에 의해 건축아카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전공자들에 의한 아카이브보다는 건축은 자료가 구축되는 하나의 분야로 인식된다. 전문시설이기에 숙련된 아카이브 책임자는 오랫동안 시설을 책임지는 성향이 강하다.

②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교육제도

중국의 경우 기록관리 관련학과 전공자와 업무 경력자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이래 근대 기록관리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현재 3년제 에콜드샤르트(École Nationale des Chartes)가 설립되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을 위해서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마르부르흐 아키브슐레와 뮌헨 아키브슐레로 구성된다. 마르부르흐 아키브슐레는 행정적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뮌헨 아키브슐레에서는 학문적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문적 기록관리의 경우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후 3학기동안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③ 소장 자료의 전산화

소장 자료에 대한 목록화는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물리적 데이터들의 보관을 위한 자료들이 증가하면서 공간부족과 디지털 매체의 정보 저장을 위한 고민이 진행중이다.¹⁷⁾

3) 건축기록물의 활용

(1) 전시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내자료 혹은 해외자료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등의 차이가 있다. 상설전시의 경우 기관의 성격을 표현하고 기획전시는 다양한 시도를 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시는 연대기순을 기본으로 하되 단순나열보다는 주제별로 그룹을 짓거나 역사적 전환점에서 의미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의 경우 근대이전의 건축은 유적 그대로를 이전 혹은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2007년 11월 현재, '현대·근대 갤러리'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 건축가라는 직업
- 산업화 : 공장생산, 규격화로 인한 건축환경의 변화
- 외장, 지붕 씌우기 : 외장과 지붕재료와 공법의 발달에 따른 변화
- 메타포와 레퍼런스 : 근대시기 과학, 의학 등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메타포와 레퍼런스로 인한 건축의 다양한 모습

17) European Conference 'Architecture & Born-digital Archives': 2007.11.8~11.10

- 정체성과 상징성 : 에펠탑 등의 사회 문화의 정체성의 표현으로서의 건축
- 일에서 여가까지 : 급변하는 도시사회에 대한 노력으로서의 교육, 건강, 체육, 여가, 문화에 관한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
- 새로운 삶의 양식(주거) : 3개의 스케일(단위세대, 건물, 도시)에서 조망되는 주거에 대한 고민과 해답들
- 르 꼬르뷔제 : 실물크기 모형전시

건축물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도면이나 모델이 주된 전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건축물의 일부를 전시하거나 집합주택의 한 모듈을 실제 크기로 전시하면서 건축·도시 분야의 차별화된 전시를 꾀하고 있고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짚은 교류전시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보이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 출판사업

각 기관들은 테마화된 주제를 가지고 전시와 아카이브 수집을 중심으로 출판하여 지식생산체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수집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기관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아카이브 자료를 발굴하여 COLONNES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주로 NAI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출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출판사업부문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된다. NAI의 출판사업은 일년에 30회 이상 개최되는 전시회의 카타로그, 전시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40여권의 건축·도시 및 예술관련 서적을 영어와 네덜란드어로 출판하여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3) 교육지원

아카이브 자료는 단순한 보관보다는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아카이브 시설이 포함된 박물관에서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대상층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내용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전문용어를 쉬운 단어로 표현하는 등의 전달방법 개발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박물관들은 거의 학생이대상인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어, 전문 박물관의 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평소에 전문 아카이브 센터로써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날'¹⁸⁾에 시설을 일반에게 개방하여 친숙하게 알리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는 성인과 아동을 나누지 않고 기존 전시물 사이에 스테인드글라스 모형실습, 볼트구조 만들기 같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을 마련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보존중인 전시물의 입체적인 반응을 담아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4) 연구지원

소장 자료의 목록은 웹사이트에 올라있으며 사전에 연락하면 자유롭게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를 위한 연구 지원시설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데, 보관중인 사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 예약하면 거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 아키비스트들과 연구 방향에 대한 문의와 토론도 할 수 있어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해 본 경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전문 자료보관소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다.¹⁹⁾

캐나다 건축센터(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 CCA)에서는 97년부터 연구기능이 강화되어 공식적인 시설로 확대되어 교환연구 프로그램(Visiting Scholars Program²⁰⁾)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연구자들은 몇 개월에서 1년 가량의 레지던스 시설과 연구시설을 지원받으면서 센터내 아카이브센터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소논문형태로 발표한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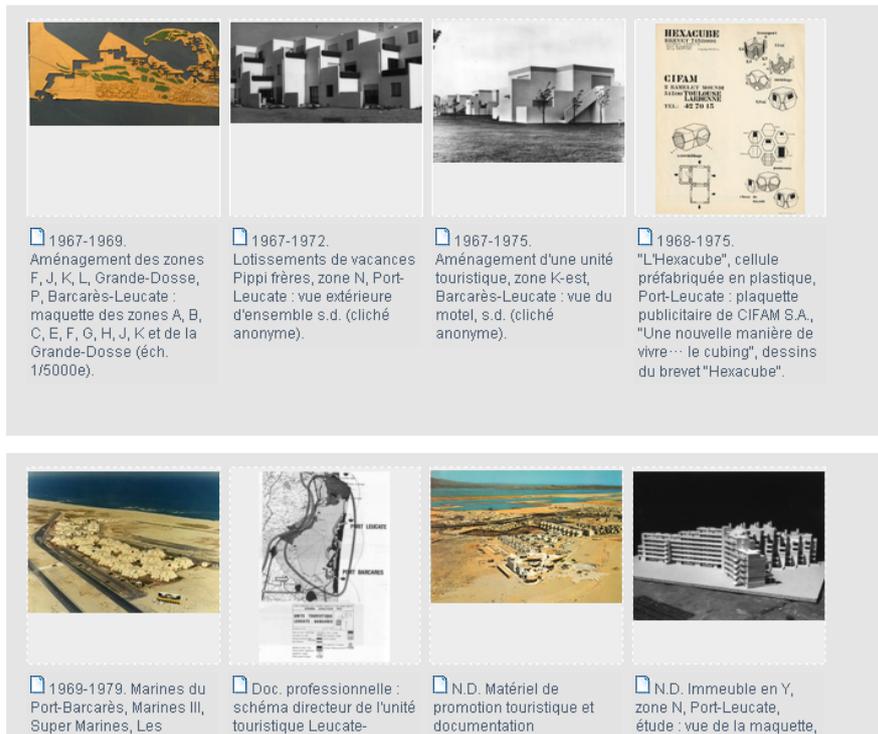
18) the European Heritage Days(journees europeennes du patrimoine)

1984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역사기념물 개방의 날'(자크 랑, 전 문화부장관이 만든, 대통령궁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오픈)을 모델로, 1991년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시작됨. 유럽지역 40여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8월말 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됨. 프랑스의 경우 9월 세번째 주 주말, 유럽의회에 제안자는 자크 랑(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19) p.18, 정인하,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와 아카이브, 대한건축학회지, 2003. 08

20) <http://www.cca.qc.ca/pages/Niveau3.asp?page=study&lang=eng>

21) http://www.cca.qc.ca/pages/Niveau3.asp?page=etude_rapport_annuel&lang=fra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모든 연구결과의 초록은 소책자형태의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젊은 교수급이나 연구자들로 추정되며, 그곳에서의 연구가 이후 수업이나 출판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8〉 20세기 프랑스 건축기록관의 인터넷 자료 예시

4) 국제적 연대와 교류

ICAM²²⁾, ICA²³⁾, AAE(Architecture Archives in Europe), ACN 등을 통한 각국의 공통된 고민들인 '디지털기술에 의한 아카이브 환경의 변화', '자료의 교육과 해석의 문제', '건축 박물관과 전시를 통한 교육' 등을 주제로 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 ICAM : 1980년 설립 이후 2년마다 컨퍼런스 개최
- AAE : 건축기록물 관리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004)
- ICA : 건축기록물의 아카이브관리 가이드 배포(2000)

22) <http://www.icam-web.org/>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chitectural Museums

23) <http://www.ica.org/>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유럽은 유럽공동체(EU)를 구성하면서 유럽공동체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of European Communities)의 문서공개를 통해 역사 연구 활성화와 유럽 건설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문서공개를 시행하면서 통일적인 기록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행하여 온 경험이 있었기에 전문분야에서도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건축 아카이브는 문화재 중심의 고건축에 한정하고 전시분야는 현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 성과 위주의 전시에 치우쳐 있다. 한국 건축가협회 차원에서 아시아 건축가 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에 가입되어 있고, 작품상과 회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유럽만큼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정책적 제언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a u r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정책적 제언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대한 정보는 국가의 공간 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관련 산업, 학술 및 문화기반 구축에서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정보이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공공기록물 및 정보인프라의 강화는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도시공간 정보인프라 구축의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책 목표

(1) 공공기록물 관리의 강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공공기록물은 관련 정보 및 지식생산 활동의 최종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록물 관리에는 비현용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개념뿐만 아니라, 현용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비밀 정보를 제외한 기본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정리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보관리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들어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와 국가 GIS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

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건축물 정보와 도시정보 관리 기반사업들을 바탕으로 정책수립 및 민간 부문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중요 국책사업과 공공건축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급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관련된 민간 부문의 기록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인프라간 연계 강화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분산된 정보기반간의 연계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기반 강화가 단일한 정보화 사업으로 완결되기 어려우며, 분산된 정보기반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다양한 지리정보와 장소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사는 이러한 정보를 3차원적으로 표현하고 네트워크하는 플랫폼만 제공하며, 장소정보, 사진정보, 3차원 건축물 경관정보 등은 각각 다른 정보 제공자가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대한 정보는 위치정보 기반의 표준화된 연계 규약이 마련된다면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사회적 보급 및 활용 체계 강화

정보인프라의 구축 못지않게, 사회적 보급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제 사용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다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정보보급 및 활용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보 제공 주체간의 연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관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가 곧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정보센터는 그 자체로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은 크지 않지만, 각 학회 및 대학교와의 꾸준한 정보제공 협약을 통해서 관련 학회의 학회지 원문 서비스 및 학술대회 정보 제공의 표준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상당 수의 관련 학회 및 대학교의 학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중점 추진 과제

(1)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 추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정보 관리의 강화는 활용성이 높고 시급한 것부터 단계별·주제별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건축물 및 도시개발사업 아카이브, 근·현대 역사건축물 아카이브, 신도시 개발사업 아카이브, 건축 공모전 아카이브와 같은 주제 아카이브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 건축물들에 대한 개략적 정보와 3차원 형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및 국가 GIS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정보 인프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도시공간 정보 관리의 표준형식 및 공유기반 개발

위에서 제시한 정보인프라간 연계 강화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정보의 표현 및 정리에 관한 표준적 형식 및 인식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기록물의 종류와 매체 형식 등을 기술하는 방식 및 정보의 내용에 대한 표현형식의 표준화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정보 표현형식의 표준화는 관련된 정보기반간의 연계 및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3) 건축·도시공간의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최근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산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전산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정보내용의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국가 전체의 정보품질 관리의 핵심적인 관건이 되며, 이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 정보에 대한 공공의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보화 사업의 정보 신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 전담기관 확보

온라인 기반의 정보보급 체계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국제 교류의 거점이 되는

건축도시분야 전문 박물관과 같은 시설기반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산 정보가 아닌 실물 기록 매체의 수집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문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 예정인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계획의 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건축박물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 건축문화의 유형 자산 및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이를 전시·출판·교육 등에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건축·도시문화 증진 및 국제적 위상강화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간 정보수집의 의무화 등 제도적 지원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과 도시공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는 비현용 기록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기록정보가 생산 기관에 분산·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적인 건축·도시공간 정보들이 단순 행정 업무에만 활용될 뿐, 정책 수립이나 학술 활동의 기반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용 기록물의 주요 내용과 변동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정보 이외에도,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 대한 기록 제출의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 기록정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현재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정보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에 개입하는 정부, 민간, 학계의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의 건축·도시분야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 기록정보 관리의 해외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이후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주제별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의해서 직접 공급되는 공공건축물과 택지개발 사업 등의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록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근·현대 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기록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병행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공공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또한,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록정보 분류 및 표현형식의 표준화를 위한 이론적 연구 및 테스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아카이브 시스템의 비용·편익에 관한 분석과 서비스 모형의 정립에 관련된 연구가 해당된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건축·도시공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예산 투입을 통한 최대의 정책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민간기업의 건축기록물 관리현황 조사

(a u r

참고문헌

1. Ackoff, R. L.(1989), "From Data to Wisdom", Journal of Applied Systems Analysis, Volume 16, pp 3-9.
2.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http://www.arcasia.org/>
3.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http://www.cca.qc.ca>
4.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http://archiwebture.citechaillot.fr>
5.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http://www.ica.org/>
6. Murray, James A.H. et al.(1984), "The Compact Edition of the English Dictionary" ,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7.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chitectural museums (icam).
<http://www.icam-web.org/>
8. 강영환(2007), "한국건축의 국제적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권 6호, pp 141-148
9. 건설교통부(200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 547호
10. 김기현(2000), "아트 아카이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론
11. 김미연(2003), "도시철도 도면 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론
12. 박은경(2005), "기록정보의 디지털아카이브즈 구축과 사례", 제8회 기록관리 워크샵
13. 박찬승(2003), "기록물관리법과 건축기록물 보존", *건축*, 47권 8호, pp. 20-22

14. 배재은(2005), “우리나라 아카이브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론
15. 법제처(2006), “저작권법”, 법률 제8101호
16. 신승수·조임식(2007), “네덜란드 NAI-Berlage Institute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17. 우성호(2006), “도시공간정보의 공유를 통한 인터넷기반 상호협력형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권 7호, pp199-206
18. 이상준(2004), “기록물관리기관의 건축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론
19. 임창복·김도년·백경무(2004), “건축 자료 전시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 12호, p.12.
20. 전봉희 외(2003), “건축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특 정기초연구
21. 전봉희 외(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권 3호, pp 99-108
22. 정명주(2006),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론
23. 정보통신부(2003), “2003년 기업정보화수준평가 결과보고서”, 정보통신부
24. 정인하(2003),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와 아카이브”, *건축*, 47권 8호, p.18

summary

The Current Status and Overseas Cases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Yu, Kwang-Heum
Cho, Sang-Kyu
Eum, Woon-Jin

The crea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involves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As these are important public capital which forms intellectual basi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related industries, culture and academic research, many countries have made efforts for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ed to the built environment. However, in Korea, enough attention has not been paid for the issue in the course of rapid urbaniz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draw preliminary policy directions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eld in Korea.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of related public information and records, and relevant overseas cases.

There can be numerous definitions for the architecture and urban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term is used to express the information involving architectural policy, design practice, and cultural and academic activities which is produced during the course of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 design. These information and records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ir diversity of source, irregularity of representation methods, and confidentiality, thus their management and utilization require specific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in Korea, it could

be argued that the information management must be improved in three directions: Firstly, the demand for the 3-dimensional building information and urban information integrated in a framework based on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s increasing. Second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cess of each architectural and urban project need to be collect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Thirdly, need for the historic and cultural information is increasing as there is increasing attention toward the cultural value of space.

Also, particular facilities including archives, museums and libraries are essential for the manage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information. However, there are no specialized facilities or institutions for collecting and managing these inform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survey in this study showed that that public building records and data related to urban projects produ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have been poorly managed. Historic records and artifacts before the national foundation have been collected and preserv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Archives. On the contrary, contemporary records and data have been remained vulnerable because most of them are legally classified as in-use records. Similar problem can be found in the information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a result, the historic records of major national projects and architectural works are being demolished over time.

While there has been huge investment on various projects for building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th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field, most of them are focused on the delivery and propagation of book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As a result, these projects have neglect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data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knowledge creation, which means the management of the source data including original drawings, project files have been poorly implemented.

Also, information management of the private sectors are focusing on the business efficiency, thus leaving the records and data essential for academic research and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original drawings and sketches treated as unmanaged garbage. This trend might be strengthened because most of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are now implemented in digital work environment.

Overseas case study focuses on architectural museums and archives. The case study revealed variations in the form of architectural and urban informations management. This variation might be the result of country-specific context related to each country's architectural and urban policy. For example, NAI, which stands for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Institute, is focusing on the support of overseas expansion of the nation's architectural design market based on the archives of the Dutch architecture. On the other hand, the 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CITE) focuses on derivery of French architectural culture to international tourists in order to maintain cultural superiority of France.

Based on these status survey and case studie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objectives. First of all, the policy priority in the manage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information should be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cluding building records and planning records. Secondly, the interoperability of individual information systems which have been developed respectively by municipalities and governmental agencies should be reinforced. Thirdly, social delivery system of these information and records must be strengthened by policy efforts.

Particular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s follows: Building of thematic archives on new town projects,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works, major architectural competition archives; Establishment of protocols for exchanging data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eld;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system; Establishment of special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nation-wide architecture and urban information; Finally, institutionalize or enact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ublic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keyword : Architecture and Building Information, Urban Information, Archives, Museum, Record Management

부록 1.

민간기업의 건축기록물 관리현황 조사

1. 대형 설계사무소

1) 사례 1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18명
자료 구축 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비디지털 자료 병행 보관 (모든 프로젝트의 제출물과 첨부자료는 디지털화하고, 도면자료와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제본하여 보관) - 계약관련 서류는 정보센터와 재무회계 팀에서 별도로 보관 - 모형은 주요 프로젝트만 전시, 나머지는 폐기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미래전략실 정보팀
자료관리목적		서버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교육, 하드웨어 지원 프로젝트 자료 관리 등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한 자료 공유 - 정보센터(자료실)와 자료검색사이트 운용 - 전자식 출입카드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상의 개인 폴더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전달 및 공유 -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 사내자료 및 폴더시스템 제공 - 프로젝트 완료 후, 최종제출물 및 첨부자료를 CD에 담아 정보센터에 제출, 자료검색사이트를 통하여 검색 및 대출 - 출입카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서 Time Sheet를 작성하여 팀별, 개인별 업무관리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CD에 주요 중간제출물 및 스터디 자료 포함 - 스케치 등의 원본자료 및 기타 서류는 팀별로 보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완료 프로젝트의 경우 검색사이트를 활용한 효과적 검색이 가능 -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한 개인간 자료 교환이 용이함. - 타 부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자료와 CD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보관 자료에 대한 검색은 취약함

2) 사례 2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소
	인원규모	3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비디지털의 경우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함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별도의 정보관리팀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사외에서 고정 IP방식으로 접근가능 (서버관리 등은 별도외주관리) -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관리뿐 아니라 직원 각개인 출퇴근, 업무관리, 타당성검토, 기본적인 자료검색, 사내공지, 동호회 활동을 지원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직원 이름이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코드, 키워드 등으로 검색 가능 - 한글, 영문 파일명 사용 - 일부자료(개요, 배치, 평면 등의 기본자료)는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전체자료의 경우 팀 장승인의 양식을 작성 신청하면 CD형태로 수령하여 열람이 가능 - 프로젝트 완료시 연말에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CD에 담아 제출: 자료실에 보관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해서 참조

3) 사례 3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디지털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경영지원본부
자료관리목적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사무소의 역사적 유산보존 및 작업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실(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0년 이후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 사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PDF파일로 작업하여 검색가능토록 내부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유형별로 18개 용도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서버에 데이터구축, 추후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분류 진행 예정 - 담당부서에서는 디지털 자료 수집을 위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실무적인 1차적 분류작업은 각 설계팀의 담당자가 진행하지만 표준안은 마련되지 않음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용량의 한계,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작업과정에 대한 부분은 각 설계팀에서 별도 서버에 관리하고 최종 결과물만을 회사 서버에 올리고 있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차원에서는 결과물들을 수집하여 사무소 연감집 발행에 활용 - 진행과정에 대한 아카이브를 통한 유사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에 활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설계팀의 자료는 고유의 노하우로서 작업과정 전반이 공개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음

4) 사례 4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8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 과거 자료는 자료실에 도서형태로 보관 - 모형은 수상한 작품만 로비에 전시, 나머지 폐기 - 옛날 도서자료는 제본형태로 자료실에 비치, 디지털화 작업중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팀내 전산파트 - 서버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교육, 하드웨어 지원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관리뿐 아니라 직원 각개인 업무관리를 동시에 지원: 연말에 업무별, 직원별 투입 시간과 투입 인원 등이 통계로 산출 가능(매일 각자 작업시간을 기입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별, 팀별 관리 - 참여 직원이름이나 프로젝트 명으로 검색 가능 - 한글 파일명 사용 - 모든 자료는 다운이 가능하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접근제한 - 세미나나 기타 자료도 구축 - 자료를 올리는 이가 파일접근 인원, 접근자를 제한하여 사내에서도 접근을 제재하고 있음 - 프로젝트 완료시, 연말에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데이터뱅크에 올려 보관함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과정에 대해 특별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않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를 빨리 검색해서 참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사내 교육과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편

5) 사례 5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약 4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 과거 자료를 모두 도서관에 보관하다가 2004년경부터 디지털화 작업 수행 - 대표 프로젝트 모형은 로비 및 임원실에 보관, 기타 모형은 부서별로 보관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기술 본부 - 서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지원
자료관리목적		기록 보관 및 관련 업무 진행시 참조
시스템	시스템 개요	- 사내 전산망 구축 - 개인별 근태 상황 및 업무일지 작성
	운영방식	- 개인별, 프로젝트별 보관 후 프로젝트 종료 후 사내 양식에 맞게 CD로 제작, 기술본부 자료실에 제출(납품 도면, 단계별 모형사진, 스케치, CG 포함) - 프로젝트 이름 및 프로젝트 번호로 검색 가능 - 다만,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디지털 검색은 불가능하며, 아직 자료실에 비치된 책자로 활용 - 디지털 자료는 주로 담당 팀을 통해 구함 - 따라서 원자료(CAD 등)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자료실 보관 CD에 포함되기도 하며, 매년 연말 연감집을 만들어 주요 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개념 도출과정을 기록
활용		- 디지털 자료화 진행이 완료되지 않아, 담당자가 퇴사시 자료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임
기타		- 회사내에 장기 근무자가 많은 편이어서, 각자 네트워크로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음

6) 사례 6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형 설계사무소보다는 건설관리 성격이 강함 감리는 지방에 2개소가 설치 설계사무소 역시 2개소가 운영중
	인원규모	500명(설계: 80-1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모두 취급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경영지원실 - 자료실 1명, 전산실 6명(전산전문직, 외주업체)
자료관리목적		행정 업무의 전산처리 수준
시스템	시스템 개요	- 자료실 지방의 본사와 자사 간의 체제 - 자료실 : 설계도서, 감리자료, 잡지, 기술지, 작품집 - 자료실은 문서코드로 인터넷으로 항목 검색지원
	운영방식	- 납품도서, 계약서, 원본 디지털화하여 서버 자료실에 올림 - EDMS, KMS, ERP(내부전산망, 일정관리) : 유용한 자료들을 올리면 마일리지를 올리고 활용 - 포스데이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개인별로 보관
활용	모형	- CG로 넘어가면서 모델들은 회사 복도에 보관(20-30개)
기타		- 자료실에는 서적, 이관작업 CD, 최종 제출서류 보관 - 홈페이지에서 검색시스템은 가능

7) 사례 7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디지털, 비디지털 모두 있음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디지털은 전산실, 비디지털은 자료실
자료관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자료실 모두 설계부서와는 별도의 독립부서 - 자료실은 아카이브 기능만을 가지지만, 전산실은 기타 컴퓨터 및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은 전산실에서 CD나 DVD로 제작하여 보관 - 비디지털은 자료실에서 파일박스로 보관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프로젝트 번호로 기록해서 리스트업·보관 - 예를 들면 계약 전 단계에서는 AB-0000(연도 두자리, 일련번호 두 자리), 계약 후 단계에서는 C-0000(동일)로 작성하는 식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과정의 데이터 및 최종결과물을 정리해서 자료실에 보관 - 최종제출물은 파일로 전산실에도 보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비디지털 모두 직원들이 열람가능 - 비디지털의 경우에는 사내 네트워크로 직원들이 검색, 대출여부 확인가능

8) 사례 8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35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 과거 자료는 자료실에 도서형태로 보관 - 모형은 수성한 작품만 로비에 전시, 나머지 폐기 - 옛날 도서자료는 제본형태로 자료실에 비치, 디지털화 전무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총괄지원본부 서버시스템 구축, CG 지원, 사진촬영, 프로그램 교육, 하드웨어 지원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인트라넷이라는 파일 서버 구축 -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관리뿐 아니라 직원 각개인 업무관리를 동시에 지원: 연말에 업무별, 직원별 투입 시간과 투입 인원 등이 통계로 산출 가능(업무일지 작성)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별, 팀별 관리 - 참여 직원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으로 검색 가능 - 한글 파일이름 사용 - 모든 자료는 PDF로 보기만 지원 - 최종결과물만 인트라넷에 등록 - 세미나나 기타 자료도 구축 - 원자료(카드파일, 기타 양식)필요시 지원본부팀장에게 상세한 사유가 기입된 신청서 송부, 허가, 다운 : 자료유출방지 - 프로젝트 완료시, 연말에 프로젝트별로 자료를 CD에 담아 제출: 자료실에 보관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치나 스터디 모델 사진은 개인별,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스케치 보유(DVD 자료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를 빨리 검색해서 참조, 가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사내 교육과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편

9) 사례 9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5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 디지털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 홍보실
자료관리목적		- 회사의 홍보 수단으로 각종 자료 수집 연말에 발행되는 연감집도 홍보실에서 주관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없이 잘된 작품을 위주로 부서별 2-3개를 취합하여 최종 성과물들을 나열
시스템	시스템 개요	- 실별 서버는 구성원간 정보공유를 위해 사용되고 실간 프로젝트에 대한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음
	운영방식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별도의 과정만을 기록하는 인원이 있지 않는 이상 작업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
활용		- 서버에 최종 결과물만 공유되고 있음
기타		- 연간 12개 사업소에서 적어도 10개 정도의 모형이 제작되고 있으나 보관 공간의 부족으로 파기되고 있음 - 작년(2006), 3년간의 주요 프로젝트 모형들을 파기한 바 있음

2. 중·소규모 설계사무소

1) 사례 1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중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10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디지털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획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류기준을 영문코드로 마련 - 파일명을 영문코드로 추상화하여 활용 - 국문으로 운영시 임의로 파일명을 부여하여 분류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원 채용과정과 업무의 편의를 이유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치나 스터디 모델 사진은 개인별,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스케치 보유(DVD 자료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목적의 실물 모델만이 보관되고 있고, 최종 결과물 등은 디지털화된 자료만을 보관 - 서버 운영에 용량 제한이 있어 별도의 이동식하드에 프로젝트별로 보관

2) 사례 2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중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115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전산시스템 구축, 도서 자동열람 준비중 대형참고: 모형 소장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관리지원실(전산관련직은 1명 나머지는 회계 등 일반관리직)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 작업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구축: 작업환경 설정과 정비와 밀접한 관련
	운영방식	- 파일서버 폴더별 권한 정책, 프로젝트 폴더 생성규칙, 폴더별 권한 정책 수립 - 한글 파일명으로 정리 - 용도, 발주처, 이름 등 태그 검색 가능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스케치나 스터디 모형 촬영 후의 디지털 이미지 수장은 산발적으로 진행
활용		- 공통 자료, 종료 자료, 진행중인 모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여 진행 프로젝트에 참고
기타		- 자체 참고가 있는 매우 드문 경우임

3) 사례 3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소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0명 내외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별 비디지털 / 디지털 자료를 모두 보관 - 디지털 자료는 프로젝트 종료 후 서버로 옮겨서 보관 - 서버 백업 시스템은 미구축 - 비디지털 자료(도서, 샘플, 모형 등) 는 자료실에 보관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젝트가 진행중에는 각 팀장의 컴퓨터에 관련 자료를 보관 -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서버에 관련 자료를 보관 - 프로젝트 관련 모형 자료실에 보관함과 동시에 사진을 찍어 디지털 자료화하여 서버에 보관 (스터디 모형, 최종 모형 등) - 심의, 허가, 착공, 실시 최종 도서는 CD로도 제작 - 사내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자료는 누구든 서버나 각 프로젝트 팀장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검색 가능함 - 외부 협력업체와의 자료 교환은 웹하드 이용 -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출판용 자료 정리 : Text 작성(영문/한글) / 최종 기본 도면을 ai 파일로 정리/ 모형 사진, 공사중 사진, 완공 사진들 중 퀄리티 좋은 것들 위주로 정리/ 초기의 콘셉트 스케치들을 3D, 2D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디지털화 - 위의 각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업데이트하고 잡지사 등에서 요청해올 경우 원자료를 제공함 - 계획, 모형제작, 3D 렌더링, 책 편집 등은 해당 부서가 따로 없이 각 팀에서 모두 해결. (대규모 프로젝트라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렌더링 일부를 외부로 발주)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중요도가 낮은 작업 과정들은 각 작업 담당자가 보관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
활용		필요한 자료는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검색

4) 사례 4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소규모 설계사무실(아틀리에 타입)
	인원규모	8-13인 수준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 과거 자료(비디지털, 주로 납품시의 보관본 및 출력본)는 참고에 보관 -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련자료는 프로젝트 종료 후 각 담당자가 정리한 후 DVD ROM에 기록하여 보관 - 오래된 모형은 사무실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보관 - 완성도 높은 모형 또는 중요 프로젝트 모형은 사무실 진입부에 별도 전시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 별도로 없음
자료관리목적		-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차후 원활한 수주를 위한 포트폴리오 자료로 활용
시스템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없음 - 웹페이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도가 있었으나 관리소홀로 성공적이지 못함 - 사내 게시판 등 기초적인 인트라넷 구축의 시도가 있었으나 워낙 인원이 작아 실질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함 - 프로젝트 관련파일은 파일서버를 구축하여 관리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페이지는 웹페이지 관리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파일서버는 2세트의 하드디스크 레이드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확보, 파일자료에 대한 접근은 사무실 내에서는 누구라도 가능 - 인사기록 등 운영관련 내용은 관리자 PC에서 보관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모형제작 과정을 사진촬영 - 스케치는 사무실 차원에서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개인적으로 보관)

5) 사례 5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소규모 설계사무실
	인원규모	3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 공용 서버에 보관 공간을 마련해 두고 프로젝트 파일을 보관함,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 - 비디지털 : 프로젝트 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보관함 디지털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캔하여 디지털 자료로 보관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해당 없음
자료관리목적		사무실 업무의 기록 보존, 작업과정의 기록
시스템	시스템 개요	해당 없음
	운영방식	해당 없음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스케치 및 스터디 모형 디지털화하여 공용 서버에 보관 - 프로젝트 종료 시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종합한 리뷰 북 제작 및 보관
활용		추후 프로젝트에 참조, 사무실 프로모션 용도
기타		해당 없음

6) 사례 6

항목		내용
일반	성격	소규모 설계사무실(아틀리에 타입)
	인원규모	30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이후 데이터 디지털화 - 옛 자료는 자료실에 도면 및 도서형태(제본)로 보관(비디지털) - 모형은 주로 전시회에 쓰였던 것으로 주요작품 위주로 사무실에 전시, 나머지는 지하 모형실, 작업실 형태의 지방 참고 등에 보관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담당 직원 1명(일반 설계직 직원) : 프로젝트별 데이터 관리, 범용 데이터 관리(사례 등) - 하드웨어, 프로그램 관리 담당 직원 1명(일반 설계직 직원) : 서버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외부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담당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시스템개요	- 서버에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종합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별 관리 - 모든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같은 분류 체계를 사용 : 폴더명, 파일명 등 - 프로젝트 CD 제작 : 프로젝트 완료시, 프로젝트 별로 자료를 CD에 담아 지정된 곳에 보관, CD 대역시 기록 기재 : 프로젝트의 CAD 파일, 사례 등 이미지 자료, 허가서류를 비롯한 각종 문서, 보고서, 브리핑 등 중간 자료 등 거의 모든 자료를 보관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스케치나 스터디 모델 사진은 중요도에 따라 선별 보관
활용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
기타		- 선행 프로젝트의 자료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범용 데이터는 업데이트의 문제로 활용이 낮은 편

3. 건설회사

1) 사례 1

항목		내용
일반	성격	대규모 건설회사
	인원규모	2,500명(건축기술그룹 55명, 설계, 인테리어, 토목 팀)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 과거 자료는 자료실에 도서형태로 보관 - 도서자료는 제본형태로 자료실에 비치 - CD는 서버에 도서는 자료실에 보관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팀별 관리 - 회사 통합 시스템은 00 데이터팀 관리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시스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ERP시스템 구축 -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 관리뿐 아니라 직원 각개인 업무관리를 동시에 지원: 직원 개인 업무 관리 - 인사, 결재처리, 지원, 기술 등 모든 업무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별, 팀별 관리 - 참여 직원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세미나나 기타 자료도 구축 - 원자료(캐드파일, 기타 양식)는 권한 부여자만 다운로드 가능 - 프로젝트 완료시 도서와 CD로 납품받음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실 내부 제작 모형은 폐기 - 분양용 모형은 외주제작, 분양후 폐기 - 임원실이나 설계실 내부에 모형 방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를 빨리 검색해서 참조, 가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사내 교육과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편 - 그룹차원의 00역사관 설립, 홍보의 성격은 강하지만 개별 기업의 자체 역사관으로는 드문 경우

2) 사례 2

항목		내용
일반	성격	건설회사
	인원규모	1000여명(팀원 19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 디지털 - 과거 자료는 본사 자료실에 도서 및 CD로 보관, 준공후 일정기간 경과시 회사 통합 서류보관 창고에 보관 10년경과 도서는 폐기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설계팀(자료는 팀별관리)
자료관리목적		- 민원 및 하자 발생 등 문제발생시 근거자료 - 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참고자료
시스템	개요	- 설계자료관련: 팀내 메인하드에 자료보관하여 팀원간 자료공유 - 회사전체관련: 사내 인트라넷 구축하여 사용
	운영방식	- 설계팀: 파트별, 업무별 폴더작성 데이터 업데이트함 - 회사전체: 00정보기술(계열사)에서 필요사항에 따라 사내 인트라넷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프로그램 개발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파일 : 팀내 메인하드에 자료보관 - 기타자료 : ISO 9001기준 폼에 의해 자료보관

3) 사례 3

항목		내용
일반	성격	기술연구소
	인원규모	1,988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 디지털 - 과거 자료는 문서고에 도서형태로 보관 - 옛날 도서자료는 폐기 년도에 준해서 폐기, 디지털화 무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정보기술실(디지털), 총무팀(비디지털)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 기초 자료 DB
시스템	시스템개요	- 사내 인트라넷에 파일 서버 구축
	운영방식	- 사업 부서별 관리 - 최종 결과물은 인트라넷에 PDF로 등록 - 시공지침, 세미나, 학술발표, 기타자료 구축 - 프로젝트 완료시 최종본 일괄 관리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작업과정 기록 없음
활용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 검색 가능

4) 사례 4

항목		내용
일반	성격	기술연구소
	인원규모	15명
자료 구축유형	디지털 비디지털	- 디지털은 사내 인트라넷에 연동 관리 - 과거 자료는 문서고에 프로젝트별 문서형태로 보관 - 옛날 도서자료는 폐기 년도에 준해서 폐기, 디지털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무 부서	담당부서명	본사 정보기술실(디지털), 연구소내 문서관리자
자료관리목적		업무효율성 증대 / 기초 자료 DB
시스템	시스템개요	- 사내 인트라넷, 파일 서버 구축
	운영방식	- 사업 부서별 관리 - 최종 결과물은 인트라넷에 PDF로 등록 - 시공지침, 세미나, 학술발표, 기타자료 구축 - 프로젝트 완료시 최종본 일괄 관리
	작업과정의 기록여부	- 작업과정 기록 없음
활용		-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 자료 검색 가능

(a u r i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el 031-478-9600
fax 031-478-9609
www.auri.re.kr